

# 팝아트로 쓰는 편지

이현숙 김수영 김해기 이선복 이옥화 이일순  
이한나 정부희 정지은 최영애 황은영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그리움을 그리고 마음을 써내려  
마침내 건네는 편지

팝아트로 쓰는 편지  
2025년 여름, 마음을 그리는 편지

이현숙 김수영 김해기 이선복 이옥화 이일순  
정부희 정지은 이한나 최영애 황은영



### 이현숙

다정함1

### 김수영

사랑하는 나의 할머니에게  
영원한 나의 참새 짹순이  
내가 너무나 좋아한 예쁜 길채  
김공임 여사이자 나의 시어머님께  
예쁜 내 친구 유라

### 김해기

축복의 아들 우연에게(아들과 나)  
복덩이 딸 해진에게  
사랑하는 친구(성순, 재현)에게  
사랑하는 언니(인천, 대전, 천안)에게  
나는 작가입니다. (책임표 2기 수업후기)  
추가 전시작 - 윤정은 작가님

### 이선복

그리운 엄마께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보고 싶은 친구 규영아!  
사랑스러운 꽃들에게

### 이옥화

공주 마마에게  
존경하는 아버지에게  
엄마 - 이해인, 헛빛 일기 中

### 이일순

나의 아버지 이구우씨에게  
000씨 00아 실장님 쌈 딸 누나로  
불려졌고 불려주는 00에게  
나의 어머니 김영희씨에게  
나의 예수님에게  
신애숙 권사님께  
나의 젊은 시절아

### 이한나

우리 뽕이~~  
우리 귀염둥이 골별냥  
그리운 엄마에게  
기특한 우리 뽕이  
35년 우정 내 친구 홍빵에게  
한용운, 님의 침묵 中

### 정부희

나는 행복한 사람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스러운 우리 머느리  
못생긴 나의 손  
고무줄 바지  
민들레  
박완서, 고무줄 바지 中

### **정지은**

아름이에게  
혜진이에게  
차차에게  
저어새에게  
은주야 안녕

### **최영애**

혜정에게  
사랑하는 영미에게  
사랑하는 엄마에게  
영원한 내편 임준수에게

### **황은영**

예쁜 내딸 예린이에게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엄마에게  
우리집 장남 건우에게  
샤스타 테이지에게

이현숙

/ 다정함1



## 다정함1

이 현숙

두 팔 벌려 안아주고 싶다  
사랑한다 말해주고 싶다  
다정한 내 마음  
너와 날아오르다

딸의 생일을 맞아,  
사랑하는 연지의 생일에 엄마가

# 김수영

새로운 경험은 심장의 두근거림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두렵지만 뿌듯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재미있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랑하는 나의 할머니에게  
/ 영원한 나의 참새 짹순이  
/ 내가 너무나 좋아한 예쁜 길채  
/ 김공임 여사이자 나의 시어머님께  
/ 예쁜 내 친구 유라



## 사랑하는 나의 할머니에게

할머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계시죠?

그곳에서 엄마 잘 만나셨나요?

나에겐 언제나 친절하셨던 할머니. 고모들과 이야기해 보면 할머니 그렇게 다정한 어머니 아니었나 봐요.

큰고모도 할머니가 젊을 때 일을 많이 시키셨다고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아요. 늦은 밤 나에게 조용히 얘기하셨죠. 일을 많이 시킨 미안한 큰딸이라 그런지 그런 딸이 결혼 후 멀리 미국에 이민 가서 잘 보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다고. 할머니의 눈시울이 조금 촉촉해졌었죠. 나에게 할머니는 언제나 강한 여장부셨기에 그런 말을 나에게 하시던 모습을 보며 내 맘이 조금은 짠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내가 결혼해 큰아이를 낳고 친정집에 가서 몸조리할 때 할머니는 내 딸 누구도 몸조리 못 해줬는데 손녀딸 몸조리를 해준다면서 신기해하셨죠. 내가 젖을 물리지 못해 애쓸 때 가르쳐 주셨구요. 새벽 수유를 하고 힘들어

하던 나를 위해 아기를 팔에 안고 채워주시기도 하셨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몸조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이 지나 할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한 번도 먼저 전화 하지 않던 할머니가 전화를 해 주셔서 너무나 놀랐었죠. 그런데 그다음 말에 내가 울먹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다 일어나 팔을 봤는데 아기가 없더라. 너무 서운했다”라는 말.

강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걸 처음 들었으니까요. 둘째까지 할머니가 제 몸조리를 잘해주시고 셋째를 낳기 위해 한 달 먼저 친정집에 있을 때 예정일이 지났어도 나오지 않아 걱정스럽던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할머니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뱃속의 셋째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쓰러지시고도 아이들 걱정에 중얼거리시던 그 모습 또 그걸 알아듣고 얘기하던 내가 고모는 너무나 신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할머니를 서울로 보내드리고 다음 날 나온 셋째는 나에게 할머니를 살려준 소중한 아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막내 고모에게 부탁했다는 막내의 책가방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올해 아버지의 팔순을 집에서 하며 고모들과 작은아버지를 모두 불러 잔치할 때 큰고모도 멀리 미국에서 왔었어요. 그 러면서 조카딸이나 큰고모인 자기에게 친절하게 잘해주는

것이라며 말해 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 아세요. 솔직히 할머니가 내게 주었던 사랑과 받았던 예쁨을 어쩌면 할머니가 그리워하고 미안해하는 큰고모에게 조금이나마 해주고 싶었던 거 같아요.

할머니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있고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켜보다가 잘되거라 응원해 주세요.

날마다 그립고, 사랑합니다.

할머니를 사랑하고 언제나 그리워하는 손녀 수영이가



## 영원한 나의 참새 짹슨이

너를 처음 봤을 때 트럭 짐칸 안의 너는 조그만 새끼 새였다. 아마 이소를 하다 떨어져 고양이에게 다리를 물려 다쳤는지 아니면 그냥 둥지에서 떨어졌는지?

어미가 널 데려갈 거로 생각하고 차에 치이지 않게 화단에 널 넣어 주고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반나절이 지나 다시 지나가는길 너를 다시 보았을 때 맘이 복잡해졌다.

설마 했지만 다친 널 어미 새는 버린 것 같았고 날이 저물면 어쩜 이곳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닐 길고양이의 먹이가 될 것 같았다.

딱 하루만 너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 했는데 정말 딱 하루만 이었는데…….

내가 주는 죽쌀을 먹고 아이들이 만들어준 집에서 몸을 숨기며 쉬고 있더라.

지금까지 관심 없던 참새를 자세히 관찰하였고 노란 너의 주둥이가 아직은 너무 어린 새끼 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큰아이는 너를 보며 단번에 짹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너와 너무나 어울린다 생각했었어. 너무 귀여워서 내 마음을 단번에 가져가 버렸다. 뚱을 싸고 짹짹 울며 너를 봐 달라고 하더라. 마치 어미 새를 부르듯이. 내 손 위로 올라와 나를 바라볼 때는 어쩌면 너를 키워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었지.

아이들이 주는 조그만 곡물도 내가 잡은 작은 작은 별레도 잘 받아 먹어주고 물도 잘 마시며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았다. 온종일 집에 있는 네가 안타깝다며 바깥바람 쏘이주려 막내 학원에 데리고 나갔을 때 반갑게 손짓하며 들어가던 막내를 바라보던 네가 생각이 나.

어깨에 조용히 앉아 쉬고 있던 너의 모습이 나는 아직 생생히 기억에 남아있다.

막내는 네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녔으면 했나 봐. 컴퓨터 바탕화면에 파란 하늘 사진을 띄워놓고 손에 너를 앉히고 올려놓기도 했었지. 네가 빨리 자라서 정말 저 푸르고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녔으면 했어. 그리고 그런 너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어.

네가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이 되어가던 그 날 나는 드디어 결심했다. 네가 우리 집에서 예쁘게 건강하게 자라길. 너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작은 새가 먹을 수 있는 사료를 사서 왔는데, 그렇게 빨리 우리 결을 떠날 줄이야. 들어와 너에게 다가갔을 때 너의 모습에 철렁하였지. 죽음을 경험

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네 모습이 귀엽다며 웃고 있었지만 나는 알았다. 너의 마지막 떨림이라는 걸. 나는 내가 이렇게 절실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네게 산소공급을 할 줄 몰랐어. 나는 한참을 그렇게 널 살리기 위해 애썼고 아이들은 가까운 동물병원들에 모두 전화를 했다. 그러나 참새를 봐줄 병원은 없더라. 마지막 떨림이 끝났을 때 아이들은 평평 울기 시작했다. 그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해. 너를 깨끗한 종이에 싸 큰 나무 밑에 묻어주고 오는 길 아이들은 나에게 얘기했어. 죽음이 헤어짐이 이렇게 슬픈 거라면 예쁜 고양이도 강아지도 기르지 못할 것 같다고. 가끔 지나가는 길 너를 묻었던 나무를 보며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었던 예쁜 너를 생각하고 좋은 곳으로 가길. 때로는 어떤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래본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해 준 나의 조그만 아기 참새 짹슨아.

그곳에서는 언제나 건강하길 그리고 파랗고 넓은 하늘 자유롭게 날아다니길 바란다.

조그만 너를 기억해.



## 내가 너무나 좋아한 예쁜 길채

이름이 왜 이렇게 예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했어. 너를 처음 봤을 때. 내 맘에 쏙 들어왔다.

첫 신에서 한복에 냉기를 메고 단옷날 그네를 타던 예쁜 네 모습에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얼마나 알밉던지. 그래서 다른 아기씨들이 너에게 질투를 느낄 만했어. 짹사랑하던 그 사람이 다른 이와 혼인한다고 할 때 네가 했던 행동들 그리고 그걸 귀엽게 지켜보던 남주인공 장현……. 투덕거리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그네신에서 나온 첫 대사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분꽃이 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남자 주인공의 말에 한눈에 사랑에 빠진 걸 알 수 있었어.

그렇게 예쁘고 원하는 이와 평범하게 살길 바랐던 네 맘이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전쟁에서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지. 그 시절 정절이란 목숨과 같다며 교육받던 여성들과 달리 전쟁 속 너의 친한 벗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살기 위해 몸부림쳤을 너를 생각하니 어린 나이 모든 게 얼마나 벼겁

고 힘들었을지 눈물이 나더라.

장녀라는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것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고 악착같이 생활해나가는 너를 보면 정말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 나라면 그렇게 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고 그가 다시 못 올 거라 절망하던 네 모습 그가 네게 준 옷을 흔들면서 다시 돌아오라 외치던 네 모습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와 혼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이가 돌아와 같이 떠나자고 했을 때도 네 마음이 찢기는 고통을 느꼈겠지만, 가족을 택하며 그렇게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갈 줄 알았어. 다른 이의 잘못된 이기심으로 포로가 되어 심양에 끌려가고 너의 그 예쁜 얼굴이 독이 되어 큰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걸 모면하기 위해 얼굴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나쁜 일을 피하려 했는데 힘없고 작은 나라의 백성 그것도 여자 포로는 너무나 잔인하게 상황을 만들어갔다.

너의 사랑 장현이 너를 위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널 구해줄 때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며 하던 너의 마음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 지켜볼 수밖에.

장현이 너를 위해 모든 걸 버리고 널 조선으로 보내던 날 청나라 공주가 너를 죽이려 할 때 너에게 달려가며 부르던 그 말 “부인” 그래 남의 안사람이지만 얼마나 찡하던지. 그

부인이라는 부름에서 다시 ”길채야”를 외치던 장현의 모습, 너를 대신해 활을 맞던 그 장면이 잊히지 않았다.

너를 대신해 활을 맞은 장현을 위해 돌봐주고 그 힘들던 전쟁에서도 그 시간 만큼은 네게 큰 행복의 시간이었겠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갔을 땐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던 너의 위치, 포로였던 네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갔을 때 살아있음보다 더 끔찍했던 사람들의 시선 그 사건으로 이혼하고 집에 누를 끼칠까봐 멀리 이사해 전쟁에서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보며 씩씩한 길채로 살아갔다.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았던 장현과 재회하고 행복하게만 살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나 가혹하게도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장현이 이용되고 그로 인해 그가 실종되고 많은 해를 기다려 그를 만나고 그의 품에 안긴 너를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갈라놓지 않기를.

상큼한 봄 초록초록했던 어린 날의 길채. 전쟁이라는 큰 사건의 중심에서 너에게 닥쳤던 모든 시간을 그 시간이 지나고 길채답게 살고 있었던 나이든 너의 시간도 모두 사랑스러웠다.

사랑하는 장현과 더불어 봄에는 꽃구경하고 여름에는 냇물에 발 담그고 가을에 담근 머루주를 겨울에 꺼내 마시면서 함께 행복하게 늙어가길 바란다.

어쩜 그 대사가 나를 위한 대사 같아 너무 좋았다.

길채야

언제나 길채답게 당당하고 행복하길.



© 2025. 김수영



## 김공임 여사이자 나의 시어머님께

지금 제 나이가 어머님이 할머니가 되셨던 나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 너무 젊은 나이에 할머니라는 이름을 갖게 해드렸나 봐요.

젊어서 혼자 몸으로 고생해 키운 아들. 모르는 애가 테려간 것 같아서 많이 제게 서운하고 못 돼 보이셨을 듯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때의 어머니 나이와 비슷해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젊으셨던 어머니는 저에게 손자는 절대 못 보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절대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가 너무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어머님 저는 아이들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저 제 아이들이고 그래서 더 잘 보살피려 했고 어머님에게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 부탁드리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당당하게 경제생활 하시면 혼자서 할머니도 모시고 열심히 사시면서 모든 걸 감사하며 사셨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요. 아직 초가 암이라 간단하게 수술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5년이 되지 않은 채 다시 재발하여 이번에는 개복해 수술하고 다시 열심히 몸 추스르고 계셨는데 그 후로도 여러 번의 다른 수술로 지치셨었죠. 한 번씩 큰 수술 하실 때마다 우울해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해요.

그럴 때마다 당돌하게도 전 그런 어머니에게 이번 수술이 조금만 늦었으면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거라며 얘기 드리곤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못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조금만 늦게 수술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끔찍합니다. 그 큰 수술들을 3번이나 잘 견디셨는데 코로나 시기 고관절 수술이 어머니에게는 어쩜 지금의 어머니 상태를 만들었나 봐요. 한 달을 보지 못하고 퇴원 전 잠깐 뵈었던 어머님의 모습이 제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지요. 어머님을 보며 갑자기 울음이 나와 차마 얼굴을 제대로 못 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달을 요양병원에서 요양하시고 집으로 보내드릴 때는 이제 다시는 아프지 않으셨으면 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던 대로 차 가지고 다니시면서 목욕탕에서 푹 몸을 담그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그렇게 편해지실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어머님은 깜빡깜빡하셨습니다. 차 사고가 나고 얼

굴을 다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천천히 나타났어요. 남편이 제게 갑자기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설마 했었는데 어머님의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초기 치매를 진단받으셨어요. 맞아요. 긴병에 효자 없다고 남편도 어느새 조금은 지쳐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뿐인 엄마인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 없는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원래 무뚝뚝하고 애교도 없는 며느리라 살갑게 지내지는 못 했어도 25년을 함께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저도 이렇게 늙어 버렸네요. 어머님이 한 번씩 저 보실 때마다 종종 얘기하시죠. 너는 늙지 말라고. 저도 더 안 늙었음 좋겠는데 시간은 평등하게 지나가니까요. 어머님이 나이를 먹듯 저도 어느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더 좋아질 수는 없지만, 갑자기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삶이 평탄하지 않았지만, 꿋꿋이 버티고 살아오신 어머니의 그 힘을 존경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의 하나뿐인 며느리가



## 예쁜 내 친구 유라

우리의 삶에 계절이 있다면 어쩌면 우린 푸르렀던 봄에 만나 치열했던 여름을 같이 지나고 이제 막 가을로 접어든 때 일 거야.

오랜만에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제는 기억도 희미해진 너와의 첫 만남 우리는 언제부터 친하게 지냈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

하지만 너를 만나서 지금의 내 삶에서 네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내 삶에서 여러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네가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다. 또한, 내가 행복할 때도 항상 내 곁에서 있어 주었어.

엄마를 잃어버린 내 스물셋 그날도 직장에 다니던 네가 나에게 위로를 해주었고, 결혼을 앞두었던 스물다섯 나에게도 넌 언제나 같이 있어 주었어. 아이를 낳고 친정집에 있던 나를 봐주려 와주었던 첫 번째 친구도 너였더라. 아빠가 아프다고 걱정할 때 내가 가지 못하니

네가 데리고 병원에 가주었지. 이번 아빠의 팔순에도 네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잘 치르게 되었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나열할 수 있겠어?

서로 다른 취향과 성격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한 번씩 신기하기도 하더라. 서로를 이해한다기보다는 다른을 인정한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반대 성향의 네가 하는 말이 가끔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이해심을 갖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어쩜 같은 성격을 가진 우리 남편을 너를 통해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나이 오십이 된 지금도 나에겐 선생님이고 어느 순간에는 자매 같은 내 친구 유라야. 삶이 평탄하면 좋으련만 하느님은 공평해서 너와 나에게 숙제를 하나씩 던져준 것 같아. 그 숙제 천천히 풀어가며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한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서 있으면 역풍이지만 등을 지는 순간 순풍이라 하잖아. 삶이 언제나 순풍일 순 없으니 우리 맘을 바꿔야겠지.

조금 일이 해결되고 나면 우리 다시 여유롭게 여행하기로 하자.

언제나 나와 여유롭게 커피 마시고 싶다는 그 말이 나에게는 애듯함으로 들릴 때가 있어. 가끔 짬이 나면 내가 너에게 갈게. 그리고 그 여유 만들어 보자.

내가 지금까지 쓴 편지 중 제일 길게 쓸 거라 생각했는데

글로는 적을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있네.

우리 언제나 건강하자. 한 번씩 나이든 우리의 미래 모습을 생각해 보곤 하는데 나의 마지막에도 네가 언제나 존재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여행도 많이 다니고 쇼핑도 같이 다니고 맛있는 밥도 같이 많이 먹으러 다니자.

고맙다. 내 친구 유라.

너의 친구 수영이가

추신 : 네 얼굴 더 예쁘게 그려주고 싶었는데. 아쉽다.

# 김해기

- / 축복의 아들 우연에게(아들과 나)
- / 복덩이 딸 해진에게
- / 사랑하는 친구(성순, 재현)에게
- / 사랑하는 언니(인천, 대전, 천안)에게
- / 나는 작가입니다. (책쉼표 2기 수업후기)
- / 추가 전시작 - 윤정은 작가님



## 축복의 아들 우연에게

축복의 아들처럼 내게 와준 우연이.

출석수업 하는 날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집에 와보니 엄마 원피스를 가위로 잘라놓았던 기억은

아 하 ~

내가 공부한다고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무서운 생각  
으로 마음 조이며 걱정했던 기억이 ~

그리고 4학년 여름휴가 때 깊은 바다 쪽에(강릉) 빠져  
죽을 뻔했던 기억이 젤로 큰 기억으로 남는구나.

생각해 보면 모두 잘 이겨내고 잘 커줘서 고맙다.

초등 4학년쯤 외할머니 돌아가신 이후부터 그 충격으로 엄  
마 발아기가 되었던 너 가 예쁘고 마음 고운 예진이를 만난  
것도 너는 축복의 아들이라 복이 많아 모든 일도 술술 잘  
풀리는 듯 하는구나.

결혼식 앞두고 초조해하는 내 모습에 늘 엄마가 잘 키워서  
요즘은 결혼도 안 하는데 결혼도 하고 엄마는 당당하면 돼  
하면서 늘 힘을 주던 우연이 (올 4월에 결혼)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고 대견하단다.

장모님 장인어른의 끔찍이 챙겨주는 사랑받는 보습을 보니  
더 감사하고 네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꼭 하며 삶을 멋지  
게 살길 바란다.

예진이랑 함께 마라톤 하는 모습도 너무 건전하고 보기 좋아 ~  
젤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행복한 삶을 예진이랑 예쁘게 설계하며 그려가길 엄마는 늘  
너를 응원한단다.

엄마 아들로 잘 있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 사랑하는 엄마 쓰다 ~



© 2025. 김해기



## 복덩이 딸 해진에게

동생 우연이 태어나서 산우조리차 천안 이모 집 갔을 때 우연이 젖을 먹이려고 안고 있으면 자꾸 엄마 무릎에 앉으려고 하던 너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 너가 왜 이리 안쓰러워 마음 짠한 생각이 나네  
나이는 3살 차이지만 2월생이라 학교로는 2년 터울인 너와  
우연 그리고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다니면서도 늘  
동생을 잘 챙기고 엄마한테는 늘 복덩이 딸인 해진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는 크게 속 아픈 일이 없는 듯 하구나  
늘 밝게 긍정인 해진이

근데 생각나는 게 있다

네가 대학에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 손을 들면 예쁜 학생들  
만 시킨다고 미팅도 하고 싶은데 남학생은 몇 명 없고  
엄마 나 좀 예쁘게 낳아주지 했을 때 마음이 넘 아픈 기억  
이 생각나~ 대신 어떻게 해줄 수도 없으니~  
늘 속 깊은 복덩이 딸 해진아

엄마한테 넘 잘해줘서 고맙고 동생 잘 챙겨줘서 고마워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벗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으니 그것도  
축복이구나

앞으로는 너도 더 행복하길

항상 엄마는 응원 한다. 남친하고 내년쯤 결혼할 계획이라니  
잘했어

한번 멋지게 그려도 보고 설계도 해보고 잘 그려가길 바란다.

엄마 같았던 속 깊은 딸 해진이 많은 걸 잘해주지 못했지만  
늘 좋은 말 고운 말만 해주던 너 사랑해

엄마만 생각해 오늘은 젤 행복한 순간이 뭐였을까? 묻던  
너.

복덩이 딸 너였구나!

아 참~ 꼭 하고픈 말은 너 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  
길~ 지금처럼 남친하고 보드게임을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엄마도 보드게임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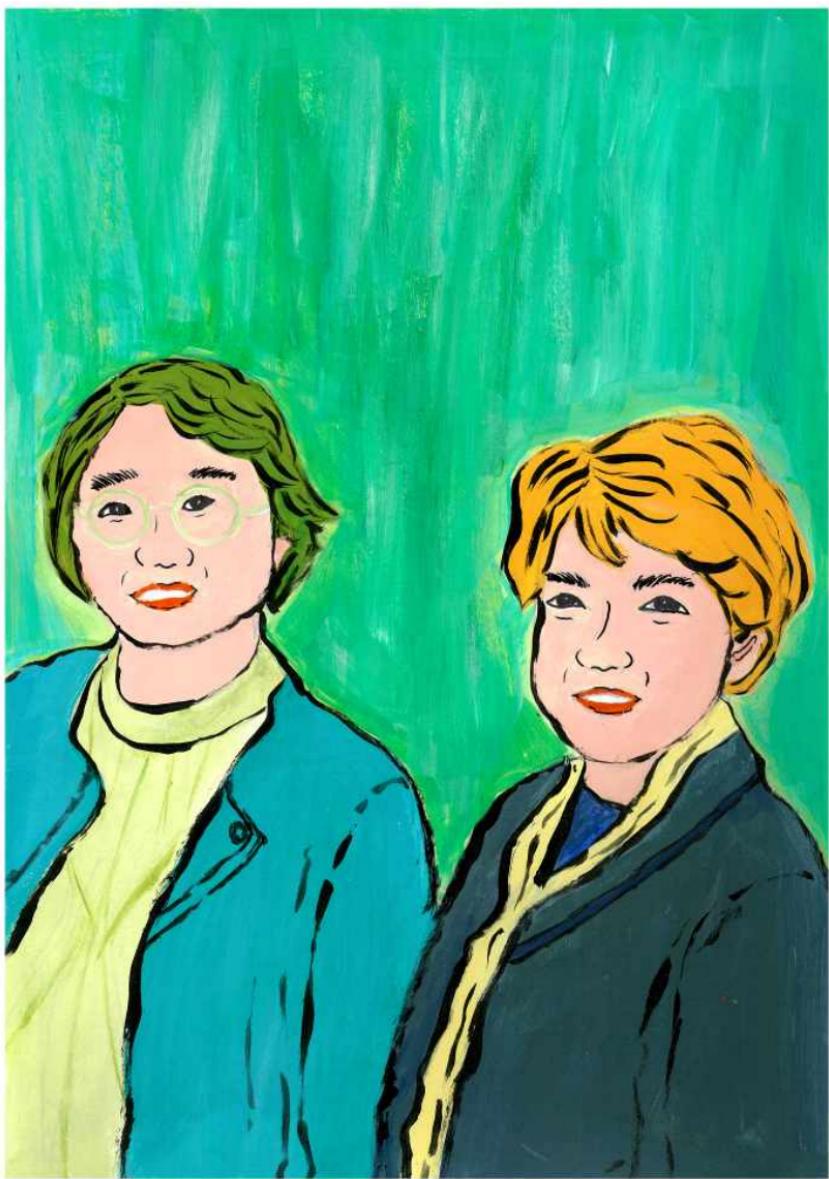
별처럼 빛날 너의 모든 날을 응원해

복덩이 딸 사랑해요.

\*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 쓰다 \*



© 2025. 김해기



## 사랑하는 친구 (성순, 재현)에게

그리운 어린 시절 친구야

지금까지 너희들은 늘 내 등 뒤에서 날 지켜주고  
있었다는 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로만 전하네  
난 친구를 잊고 살 때가 많았는데 !

보건소 소장으로 시골 마을 어른들에 건강을 챙기고 있는  
성순이

가게를 운영하며 시골 마을 지키고 있는 재현이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먼 길을 마다 않고 강원도 영월  
까지 함께해주고 ~

이번 아들 결혼에도 먼 길 기차 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마음이 짠했단다. 그런데 너희는 예식장 이름이 소풍이네  
라며 소풍 가는 마음으로 둘이 가니까 우리는 걱정 말고 준  
비 잘하고 그날 보자, 하던 말이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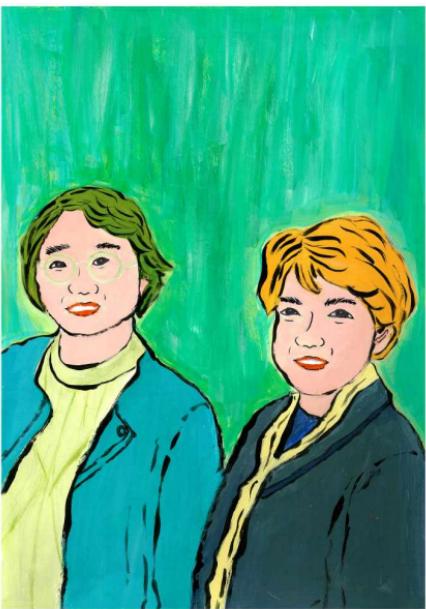
늘 지금까지 잊지 않고 챙겨주고 지켜준 친구 재현이 성순이  
받은 사랑 너무 커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환하게 당당하게

글과 그림으로 편지 쓰기를 하고 있단다

이제 내가 친구를 챙길 차례 어디 아프지 말고, 몸 관리 잘  
하며 곱게 나이들어 가자구

그리운 어릴 적 친구 성순이 재현이 사랑한다.

~ 친구를 그리워하며 해기 쓰다 ~



© 2025. 김해기



## 사랑하는 언니(인천,대전,천안)에게

인천언니, 대전언니, 천안언니, 작은오빠 세월이 너무 빠르  
게 흘러 내가 벌써 환갑이네

인천 언니는 내가 초등 1학년 때 마당에 이동 예식장을 차  
려 놓고 예식을 하고 집 앞 좁은 길을 택시 타고 떠나던 모  
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네~ 잘 쟁겨주던 언니가  
시집을 가니 어린 마음에 슬퍼서 울었던 기억 자주 못 볼거  
라 생각하니 맘이 얼마나 슬프던지 언니는 알까요?

대전 언니 멋쟁이 엘리트 언니 60~70년대 언니는 우체국  
교환 일을 했었다 지금 생각해도 언니는 예쁘고 능력있고  
똑똑하고 멋진 언니였어요 동네 최고 ~

그사이에 작은오빠가 있어요 오빠는 군에 갔을 때 응변을  
잘해서 포상 휴가를 여러 차례 받고 나와서 마을 잔치하고  
응변하고 지금도 기억이 새록새록 우리오빠 최고

천안언니 고등학교 졸업 하자마자 시집을 갔다 농사일이 너무 많아 아버지가 싫어서 얼른 시집을 갔다지만 아들 다섯에 장남 맘며느리 고생을 했을까요? 각자 생각하시고 그래도 지금 다 건강이 잘들 있으니까 몸 잘챙기고 더 많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니들이 세상 떠날 때 빈손으로 가는데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지 그치 어디 아프지 말고 웃는 일만 가득 행복하길 ~ 오래오래 곁에 있어요

인천언니, 대전언니, 작은오빠, 천안언니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긴데 언니 사랑해요

~ 언니를 그리워하며 해기 쓰다 ~



© 2025. 김해기

나는  
작가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

## 나는 작가입니다, 책 쉼표2기 수업 후기

### 6주 동안

지나고 생각하니 젤로 재미있게 수업했던 기억이 나요  
매 수업이 가다려졌습니다  
글쓰기를 잘하지 못해도 누구나 쉽게 잘할 수 있게  
그림책 필사도 하고, 서평도 써 보고  
고전도 읽어보고, 필사하고 시집도 읽고, 시도 써 보고  
감사 일기도 써 보고  
감사 일기는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좋아요 방법을~  
실천해보세요

#### 3.3.1 감사 일기 쓰기

\*지금 이 순간 감사한 일 (3가지)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해 선택한 일(3가지)

\*나를 응원하는 긍정에 한 줄

아주 쉬워요 습관이 되기까지가 어렵죠

짧은 시간 동안 매일 읽고 쓰는 것을 알차게 많은 걸 알아  
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유인이고 철학 하는 사람으로 ‘인생수업’은 쉽게 풀어서 설명해줘서 좋아하는 고전 책이~

내가 감사 일기를 쓰고, 수업하는 동안에 인생 수업 (에픽 테토스) 삶에 힘이 되는 니체의 말도 이해가 쉬워서 필사를 매일 하고 읽고 쓰는 작가님처럼 매일 읽고 쓰는 작가로 삽니다.

조현주 작가님의 열정으로 특별한 출간기념회도 꽂다발도 준비해 주시고

각자의 책에 돌아가며 싸인도 다 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사진도 찍어주시고 지금도 싸인을 보며 힘을 얻습니다  
우리들만의 특별한 출간기념회도 있었고 멋진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건 함께 한 작가님 8명 과 뒤에서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인 듯 합니다

강사님(작가님) 감사합니다

북구도서관(신트리도서관) 늘 배우고 또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나는 작가입니다, 책 쉼표2기 수업의 추억을 그리워하며  
김해기 쓰다 ~



© 2025. 김해기



## 추가 전시작품 – 윤정은 작가님

장편소설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

2024년 북구도서관 한 책 선정도서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마음의 얼룩을 행복한 기억으로 바꾸어 찍어드려요.

보고 싶은 마음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줄 수도

보고 싶은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보여줄 수도 있어요.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슬픔이 안녕할 수 있다면

얼룩진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바꾸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마음을 찍어드리는

마을 사진관입니다.

매일이 이렇게 한 장면씩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단 한 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장면이 없어.

기록은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의 자신을 찾는 거래.

한 컷씩 찍은 사진이 모여 미래에 내가 되는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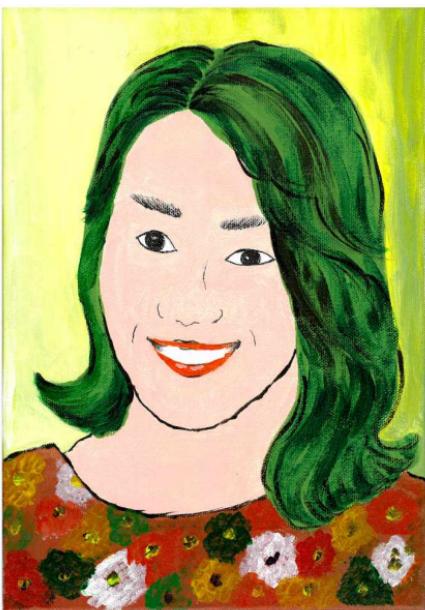
– 윤정은,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 中

SNS 함께 책 읽기 읽고 함께 읽은 내용을 책으로 출판 되었고 작가님 초청에도 함께 있었고 싸인 책도 사진도 찍고 받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발췌하고 단상까지 하면서 멋진 추억이 되었네요.

작가님 항상 건강하세요 .

~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윤정은) 그리며 김해기쓰다 ~



© 2025. 김해기가 그린 윤정은

이선복

/ 그리운 엄마께  
/ 사랑하는 아들에게  
/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 보고 싶은 친구 규영아!  
/ 사랑스러운 꽃들에게



## 그리운 엄마께

오늘은 엄마의 생신을 맞아 성묘를 다녀왔어요.

묘지에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보며 팬스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깔끔함을 좋아하시던 엄마이시기에 더 자주 찾아뵙고 단정하게 꾸며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네요.

묘지 주변에는 노란색 원추리꽃과 개망초, 연보랏빛 엉겅퀴꽃, 분홍빛 명석 딸기꽃이 만발해 있었어요. 꽃을 유난히 좋아하시던 엄마 생각이 나 잠시 주저했지만, 남편이 땀 흘려 열심히 벌초 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을 다잡고 함께 낫을 들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온몸의 땀구멍이 열리고,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땀에 힘들었지만 생각보다 잘 되는 낫질에 신이나 풀을 베었습니다.

아주버니께서 묘지 주변 흙덩굴과 밤나무 가지치기를 해주

셔서 묘지가 한결 환해졌어요.

진한 향을 뿜는 하얀 밤꽃 아래에서 가을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알밤을 주우러 오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문득 생각해 보니… 엄마 살아생전에 제가 엄마를 위해 이만큼 땀 흘리며 일해드린 적이 있었을까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해산바라지는 어렵다고 하셨지만, 제 임신과 출산, 손자들의 육아까지 도맡아 해주셨잖아요.

그땐 몰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리고 막내딸인 저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요.

지금 제 나이에 저는 제 몸 하나 간수하기도 벅찬데… 엄마는 그 연세에 온 집안을 책임지셨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렴.”

엄마의 그 말씀 덕분에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많이 배우고 좋아하는 여행도 했죠.

하지만 엄마가 떠나시던 날, 저는 놀라 통곡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민망해할 정도로.

언니는 “엄마도 네 덕분에 행복하셨을 거야”라고 저를 위로했지만,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에 대한 죄책감은 오랫동안 제 마음

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안 계신 제 삶은, 참으로 바쁘고 번잡하고 어렵기만 했어요.

지금은 퇴직하고 ‘쉼’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길을 걷다 엄마 또래의 어르신을 마주치면 울컥한 마음에 괜히 눈을 피합니다.

친구들이 병든 부모님을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면, 단 한 번도 편히 모시지 못했던 제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요즘 우리 딸이 종종 말해요.

“외할머니가 해주신 김밥, 잡채, 꼬리곰탕이 정말 맛있었어.”

어른이 되면 엄마처럼 요리도, 살림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아직도 놀기 좋아하고 김치 하나도 제대로 못 담가요.

셋째 형님과 반찬 가게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답니다.

얼마 전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드라마를 보았어요.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저는 믿어요.

예쁘고 다정하고 솜씨 좋은 현모양처로, 손주들까지 정성스

레 돌보신 엄마는

분명 아름다운 천국에서 즐겁게 지내고 계실 거라고요.

엄마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이제는 아이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게요.

엄마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2025년 7월 4일

엄마의 철없는 막내딸 올림



© 2025. 이선복



## 사랑하는 아들에게

잘 지내고 있지?

아침마다 마곡나루 근처 회사로 향하던 네 출근길. 셔틀버스를 타려 나가는 너의 당당한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엄마의 하루를 여는 가장 큰 기쁨이었단다.  
믿음 가득한 걸음, 곧게 편 어깨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길에 대한 너의 확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단다.

요즘은 대덕연구단지로 출근하면서 자주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지만,

엄마는 네가 원하던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고 참 기쁘단다.

취업 첫날, 회사에서 보내온 장미꽃 바구니와 와인, 축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엄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어.

“자녀분이 회사의 미래를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너의 밝고 따뜻한 앞날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다.

그날 엄마는 다시금 느꼈어.

네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들아,

언제나 “괜찮아요, 좋아요”라고 웃으며 말하는 너의 긍정적인 태도에

엄마는 늘 고맙고 대견했단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혼자 속앓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어.

사람은 누구나 때론 혼들리고 지치는 날이 있단다.

그럴 땐 참지만 말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렴.

엄마와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야.

세상 무엇보다 너를 믿고,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이제,

너의 곁에서 함께 걸어갈 소중한 사람을 찾았구나.

서로의 삶에 따뜻한 온기가 되어줄 인연을 만난 너에게 엄마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결혼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을 더 깊이 배워가는 시작이란다.

때로는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마음이 닿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더 이해하고 맞춰가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부부라는 이름의 참된 의미란다.

네가 어릴 적,

차도로 걸어가던 동생을 울먹이며 끌어내던 네 모습과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해.

다섯 살 때, 혼자 자기 싫다고 침대를 분해해서 할머니 방으로 옮긴 일도 아직 생생해.

어릴 때부터 생각이 깊고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너였기에 엄마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깊은 신뢰와 따뜻한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멋진 가정을 이루리라 믿는단다.

‘행복한 결혼생활은 수없이 작은 친절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단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하나, 서툰 하루를 안아주는 포옹 하나가 너희 부부의 삶을 매일 반짝이게 만들어 줄 거야.

늘 ‘내가 옳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려면’이라는 마음을 먼저 품으렴.  
서로의 차이를 단점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때론 말보다 손을 잡고, 논리보다 따뜻한 눈빛을 건네렴.

엄마는 너라면, 그리고 네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며  
따뜻하고 멋진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란다.  
너는 엄마에게 언제나 기쁨이고, 자랑이고, 희망이야.  
힘든 날이 오더라도 자신을 믿고 서로에게 기대며  
진심 어린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길 바란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채워가다 보면  
너희의 삶은 어떤 계절에도 늘 봄처럼 따스하게 빛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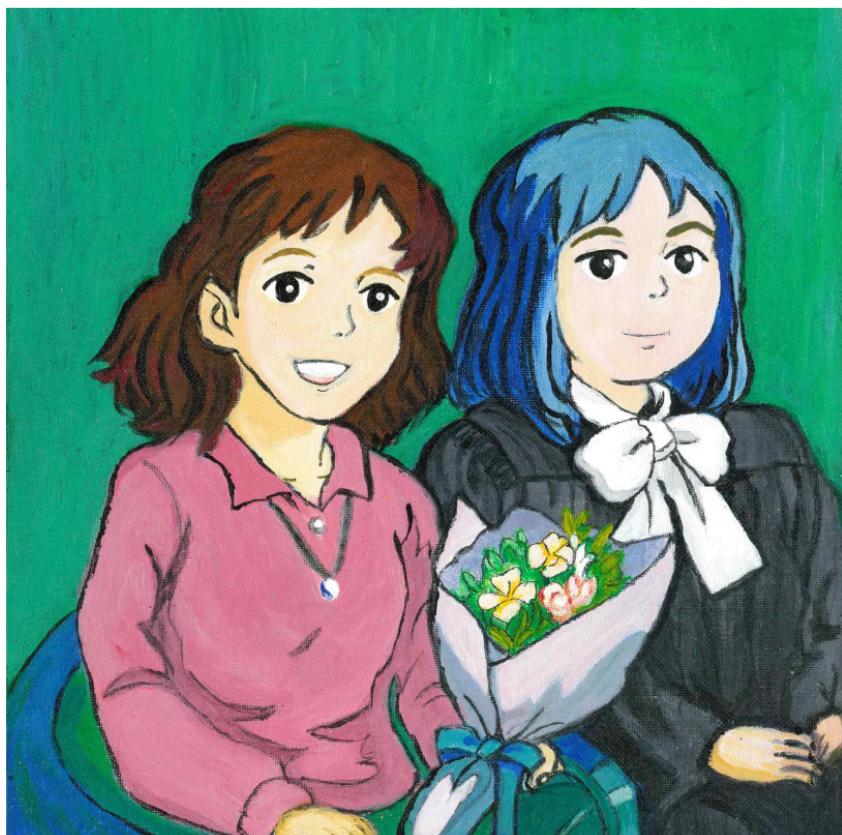
엄마는 앞으로도 언제나 네 곁에서  
변함없이 너의 삶을 응원할게.

사랑해, 아들!

그리고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2025년 7월

늘 네 편인, 엄마가



##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하얀 쪔레꽃 향기가 싱그럽게 퍼지던 어느 5월의 오후,  
엄마는 굴포천을 따라 걷다가 작은 새끼 까치를 만났단다.  
통통한 몸집에 아직은 서툰 몸짓, 어미를 찾는 듯한 그 소리  
에 마음이 쓰이던 순간, 어미 까치가 날아와 새끼 곁에 조용  
히 앉았어. 그리고 엄마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으로 경계하  
더구나.

그 모습이 참 감동이었던다. 새끼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사  
랑, 그 순간 문득 생각했어.

“나도 우리 딸에게 그렇게 살았을까?”  
돌아보니 잘해준 것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더 먼저 떠오르는  
구나.

네가 어린 시절, 엄마는 직장 생활에 바빠서 너의 많은 순간  
을 외할머니께 맡겨야 했지.  
현명하고 따뜻하셨던 외할머니는 너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  
랑하셨지.

엄마보다도 예쁘게 너를 단장시켜 주시고 곁에서 늘 지켜주셨단다.

네가 할머니 곁을 좋아해서 엄마 방에서 자자고 해도 “나중에 자줄게.”라고 말하고

웃으며 사양했던 네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그 말을 들었을 땐 조금 서운했지만, “늙은이가 좋다고 하니 나도 좋아.” 하시며

웃으셨던 외할머니의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학교 행사, 등굣길, 공개수업에 대부분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다녔지.

엄마는 그 시간에 성실히 일할 수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의 추억 속 엄마의 자리를 외할머니께만 맡겨버린 것 같아 매우 아쉬워.

그때 너는 늘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서”라고 말해줬지만 그 다정한 위로 안에 엄마는 늘 미안함을 품고 살아왔단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비로소 ‘엄마다운 엄마’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네가 하고 싶다던 것들—피아노, 성악, 기타, 첼로까지—을 다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고 함께 많은 곳을 여행하

자고 다짐했단다.

중국, 일본, 캄보디아, 동유럽,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 모든 여행이 엄마에겐 너와 함께한 황금 같은 시간이었어.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서 너를 피곤하게 했던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와 함께한 순간순간이 엄마에겐 오래도록 기억될  
행복이었단다.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딸.

비 오는 날에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학원에 갔다가  
늦은 시간에야 집에 돌아오는 너의 뒷모습을 보면 대견하면  
서도 안쓰러워.

그래도 엄마는 그런 너의 모습에서 '희망'을 본단다.

잠깐의 휴식 시간에 밀키트로 근사한 한 끼를 만들어주는  
너의 손맛은 엄마에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처럼 느껴져.

너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단다.

오빠가 아들이라 좋았다면 너는 엄마의 든든한 동료가 생긴  
것 같아 더없이 기뻤지.

비츠 교육 발표회에서 선생님을 따라 열심히 춤추던 너,  
드레스를 입고 오빠와 함께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하던 모습,  
아빠랑 캠프에 가서 밝게 웃던 너의 얼굴...

그 모든 장면이 아직도 엄마 눈에 선하단다.

할머니표 김밥, 잡채, 꼬리곰탕 등 지금도 그 음식들을 할 때마다 그 따뜻한 기억들이 너의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엄마는 참 고맙고 기쁘단다.

외할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엄마도 우리 딸에게 잘 전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 묻고 또 다짐한단다.

이제 너의 삶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자신의 길을 선택해 살다 보면,  
어떤 날엔 지치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지만 잊지 마!  
하나님께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걸.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그리고 엄마는 언제나 너의 가장 든든한 편이란 걸 기억해 줘.

앞으로 너의 인생에 따뜻하고 성숙한 사랑이 함께하길 엄마는 기도한단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 속에서 ‘엄마’가 된다면

엄마도 외할머니처럼 너의 아이들에게

동화책도 읽어주고, 꽃과 숲의 이야기도 나눠주고 싶어.

그날이 오기를, 엄마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단다.

지금은 조금 힘든 시기지만,

이 시간을 이겨낸 너는 분명 더 단단해져 있을 거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 한 시간이라도 꼭 운동하고,

마음을 나눌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위로와 기쁨도 얻길 바란다.

우리 딸!

언제나 엄마는 너의 편이야.

너의 밝은 내일을 위해 늘 기도할게.

사랑해. 힘내자! 아자!

2025년 7월, 언제나 네 편인 엄마가



## 보고 싶은 친구 규영아!

안녕? 잘 지내고 있니?

며칠 전, 지인들과 함께 인천 강화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섬  
인 볼음도에 다녀왔어.

한밤중, 고요한 바닷가 모래 위에 누워 밤하늘에 반짝이던  
별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여고 시절 늘 환하게 웃던 너의 얼굴이 떠올랐어.

그리움이 밀물처럼 가슴에 밀려와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 수 없었단다.

규영아,

넌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갑작스레 우리 앞에서 사라졌던  
너.

살면서 네 소식을 한 번도 들을 수 없었기에

문득문득 궁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했어.

그럴 때마다 나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어딘가에서 네가 꼭 행복하길 조용히 기도하곤 했지.

너를 처음 만난 건,

보랏빛 제비꽃과 광대나물꽃이 고개를 들던 3월의 어느 날  
이었어.

미술 선생님이셨던 너의 아버지가 우리 학교에 발령받으셨고,  
너는 전학생으로 당당하게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지.

그 순간, 맑은 미소와 또렷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던 네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그 무렵 나는 반장을 맡아 교실 환경 정리에 정신이 없었는데  
그림을 잘 그리던 너는 밤늦게까지 나를 도와주었지.

그날을 계기로 우리는 어느새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고,  
야간 자습이 끝난 저녁이면

운동장 벤치에 앉아 시와 소설, 영화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반짝이고 있어.

그 별빛 가득한 밤,

우리는 천문학과에 가자며 서로에게 다짐했었지.

물리 선생님, 생물 선생님이 방과 후에 우리를 따로 불러  
기꺼이 무료 과외를 해주셨던 일도 생각난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시절은 내가 살면서 가장 빠르게 결정을 내렸던 시기였고,  
'아는 것이 없어 용감했던' 우리에게  
'꿈'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마법 같았어.  
그때의 나는 처음으로 배움이 즐거웠고,  
생물 수업이 있는 날에는 선생님을 짹사랑했던 미라의 커피와  
군밤 간식으로 마음까지 따뜻해졌지.

주말에 놀러 갔던 너희 집도 기억나.  
회전식 볶걸이에 가지런히 걸린 다양한 볶들,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 준 네 샌드위치와 김밥,  
그 모든 것이 내겐 새롭고도 소중한 추억이었어.

그 후로 너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에,  
이렇게라도 너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지,  
아이들은 몇 명인지,  
미술 선생님이셨던 너의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신지,  
천재였던 너의 언니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의 마지막이 인사도 없이 끝나 너무 아쉬웠어.  
그래서 더욱 널 보고 싶어지는 지금이야.

규영아,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네가 건강하고 평안하길 마음 다해 기도할게.  
그리고 언젠가  
어느 골목 어귀에서라도  
우연히 너와 스칠 수 있기를...  
그날이 오기를 기다릴게.

2025년 7월 11일

너를 그리는 친구가



© 2025. 이선복



## 사랑스러운 꽃들에게

꽃들아 안녕?

오랜만에 너희에게 인사를 건네는구나.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너희를 향해 말을 걸었던 기억이 나.  
그 이후로 오랫동안 잊고 살다가 몇 해 전 굴포천 길을 따라  
출퇴근하며 다시 너희와 가까워졌지. 그때부터 내 휴대  
전화 갤러리는 온통 너희 모습으로 가득 찼단다.

처음엔 그저 예쁘다는 마음으로 찍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너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꽃말을 찾아보며 너희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어.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너희는 신비롭고도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었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고 나태 주 시인이 말했듯,

너희는 정말 그래. 작고 소박한 풀꽃 하나도 그 속에 담긴 생명의 이야기와 자연의 질서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

이른 봄, 봄까치 풀꽃의 보랏빛이 메마른 잔디 사이로 고개를 내밀면 내 마음도 함께 설레기 시작해. 냉이꽃, 꽃다지, 민들레, 제비꽃 등등 봄을 알리는 너희 하나하나가 나를 미소 짓게 해. 광대나물은 이름처럼 재주부리는 광대 같고, 봄망초는 넓게 퍼져 ‘꽃 명’에 빠지게 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애기똥풀, 별꽃, 현호색, 유채꽃, 분홍 토끼풀꽃까지 너희 덕분에 나는 봄을 더 사랑하게 되었단다.

강아지풀, 개밀, 참새귀리, 오리새 같은 풀꽃들은 화려하진 않아도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며 자연의 균형을 이루는 고마운 존재야. 너희가 없으면 새들도, 벌레들도, 결국 우리 인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겠지. 땅 위에 작은 몸으로 피어난 풀꽃도, 하늘을 향해 피어나는 나무꽃도, 모두 너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란다.

풀꽃이 땅을 수놓는 계절이면, 눈처럼 흘날리는 벚꽃과 매화꽃은 벌과 사람들을 꽂그늘로 이끌고, 연초록 복자기나무꽃은 은은한 빛이기에 마음으로 피어나는 꽃처럼 느껴진단다.

하얀 총포로 곤충을 유혹하는 산딸나무꽃은 너희들의 지혜를 보여주고, 쥐똥나무, 이팝나무, 조팝나무, 틀립나무처럼 하얗게 피어나는 너희는 내게 늘 새출발의 희망을 안겨주

지.

더위 속에서 피어나는 모감주나무꽃의 정열에 놀라고, 도깨비가지꽃의 이름처럼 특별한 개성과 아름다움에 미소를 짓는단다. 이런 너희를 볼 때마다 나는 자연의 신비와 너희의 깊은 뜻에 감탄하며, 날마다 더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어져.

우리 엄마는 마당 한쪽에 봉선화, 채송화, 나비꽃, 분꽃 등을 심으셨고, 신작로로 연결된 오솔길에는 코스모스와 소국을 줄지어 심으셨지. 나도 덩달아 꽃을 좋아하게 되었어. 복숭아 꽃잎이 연분홍 비처럼 흘날리면 꽃잎을 먹으려 입을 벌리고 뛰어다니던 그 시절, 자두꽃과 감꽃, 대추꽃, 골담초꽃, 담배꽃은 내 유년의 향기를 담고 있단다.

특히 초등학교 화단에서 처음 본 ‘칸나꽃’은 지금도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어.

열대의 숨결이 느껴지는 붉은 꽃잎과 넓은 잎 사이에서, 나는 꽃의 숨소리에 귀 기울였지. 냉이를 캐러 갔을 땐 꽃을 보느라 친구들보다 적게 캤지만, 나는 그 시간이 참 좋았어. 조그만 네 개의 꽃잎이 벌을 불러들여 하트 모양의 씨앗을 맺는 그 모습은 지금도 내 눈에 생생하단다.

‘며느리밑씻개’란 꽃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땐 마음이 아팠어. 가시가 촘촘히 나 있어 손끝이 베일 정도인데,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사람들의 편견이 때로는 꽃의 이름에도 스며든다는 것을 알고 나니, 너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단다.

하지만 꽃들아, 너희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야.

너희로 인해 사람은 사랑을 고백하고, 위로를 건네며, 축하와 작별의 순간을 아름답게 장식하지. 누군가에게 꽃을 주는 마음엔 감사와 사랑이 가득하고, 받는 사람은 무조건 기쁘고 고마워하게 돼. 화무십일홍이라지만, 나는 믿어. 너희는 영원하다고. 내 사진첩 속에서, 사람들의 책 속에서, 화폭 위에서, 너희는 오늘도 피어나고 있으니.

꽃들아, 너희를 통해 나는 생명의 신비를 배웠고 자연의 순리를 느꼈어. 그 고마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금해설가가 되기로 결심했단다. 누군가 너희를 알고 싶다고 하면, 나는 기꺼이 너희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재미있고 따뜻하게, 마치 너희처럼.

기후변화로 계절을 착각할 때도 있지만,  
어떤 변화에도 굴하지 말고, 너희의 시간을 살아가길 기도  
할게.

우리, 함께 더 좋은 날을 향해 끗끗이 걸어가자.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나의 꽃들아.

2025년 7월의 어느 날

# 이옥화

/ 공주 마마에게

/ 존경하는 아버지에게

/ 엄마 - 이해인, 햇빛 일기 中



## 공주 마마에게

엄마! 요즘 텃밭에서 키운 야채가 한창이라 우리 집 식탁은 각종 나물 반찬, 감자볶음으로 풍성해. 내가 하는 음식들이 다 엄마가 해줬던 그리운 맛과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걸 느껴.

학생 때 내가 아무리 바빠도 꼭 먹고 갔던 엄마가 만들어준 호박 고추장 찌개, 앞밭에 지천이던 비름나물을 맛깔 나게 묻혀 줬고, 갓 벼무린 배추 곁절이에 밥 한 공기 뚝딱 했던 행복했던 그때가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 그리워 엄마.

엄마가 해준 건강한 시골 반찬을 먹고 자란 나도 지금 내 가족들을 위해 엄마처럼 기억 속의 요리법으로 엄마 흉내를 내고 있어.

평생 시골에서 밭일, 논일, 야채 장사까지 잠시도 편안한 삶을 누려보지 못한 엄마가 뇌출혈로 병상에 누워서야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삶의 여정, 이것이 인생이라 고 하기에는 같은 여자로서 가슴이 아파.

엄마의 와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혼자 뒷바라지를 하시던 아버지를 돋기 위해 우리 오 남매가 한 달 치씩 병간호 시간표를 짜기 시작했지. 지나고 보니 내 인생에서 부모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많은 속 얘기까지 할 수 있었던 축복 받은 시간이었음을 두분 보내고 나서야 깨달은 못난 딸이야.

그렇게 힘들어하는 엄마에게 엄살이 심하다고 쏘아 대던 원망을 누워서 받아냈던 엄마. 너무 서운했지? 엄마에 대한 나의 사랑이 커던 만큼 장기전으로 접어든 병간호에 대한 원망도 커었던 것 같아.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날 줄 알았더라면, 다시 나를 기다리던 엄마가 누워있던 집을 향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뛸까 생각해. 하지만 한편으론 점점 집에서 엄마를 돌보는 걸 힘들어하던 남동생들이 한 번씩 요양원 얘기를 꺼낼 만큼 병세가 깊어져 가는 엄마를 끝까지 집에서 돌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 힘들었던 시간을 평생 위로삼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엄마 지금 우리 시골집은 비어있어. 그치만 너무 걱정은 말아요. 엄마를 8년 가까이 병간호하며 본의 아니게 자주 만나게 된 우리 남매들은 그 덕에 우애가 더 깊어졌고 엄마, 아버지가 떠난 빈 공간을 더 큰 사랑으로 채워가는 중이야.

엄마의 평소 가르침대로 나도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유하게  
늙어가며 늘 엄마가 곁에 있는 듯 의지하며 살아갈게. 너무  
사랑해 이천길 여사님.

셋째딸 옥화 올림



## 존경하는 아버지에게

며칠 전 아버지의 5주기 제사를 위해 시골 집에 형제들이 모였어요. 비어 있던 집이 오랜만에 잔칫집처럼 떠들썩해지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제사상을 차린 후 아버지의 사진을 상 위에 올려 놓았어요. 너무 갑자기 떠나셔서 제대로 된 영정 사진조차 없던 우리가 마련한 사진 속의 아버지는 지난한 투석과의 싸움에 지친 모습이 역력해서 또 한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옛날 추운 겨울 당신 몸의 10배가 넘는 나무를 지게로 나르시던 건장한 분,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가마솥 가득 셋을 물을 데워 놓으셨던 자상한 분, 비오는 날 자전거에 삽하나 꽂으시고 논으로 달려가시는 비 풍경 속의 아버지가 지나가요.

평생 허리 필 사이 없이 흙개뭉뎅이 몸으로 나를 바른 길로 등 밀어주신 분, 영어를 좋아하는 나를 위해 라디오 방송을 녹음해주시던 세심한 분, 침묵으로 온 사랑을 보여주시며 오 남매의 든든한 언덕이 돼주셔서 감사해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가정조사 때 부모님 학력과 직업을 조사할 때마다 농부라는 내 아버지가 어찌나 부끄러웠던지요. 수퍼집 딸이었던 친구 영화, 시내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던 부잣집 친구를 한없이 부러워하며 초라한 내 부모를 원망하던 셋째 딸은 50살이 넘어서야 철없던 원망을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한결 같다는 거 아시나요?

늘 침묵으로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애정과 염려, 응원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거에요. 사랑해요 영원히, 자주 뵈려 갈께요.

셋째 딸 옥화올림



© 2025. 이우화



## 엄마

기쁠 때

슬플 때

아플 때

그리고

삶이 벅겁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하느님보다

먼저 불러보는

엄마

- 이해인, 햇빛 일기 中

이일순

/ 나의 아버지 이구우씨에게  
/ 000씨 00아 실장님 쌤 딸 누나로 불려졌고 불러주는 00에게  
/ 나의 어머니 김영희씨에게  
/ 나의 예수님에게  
/ 신애숙 권사님께  
/ 나의 젊은 시절아



## 나의 아버지 이구우씨에게

하늘로 가신지 벌써 두 해가 지났네요  
이름을 불러보니 새롭네요 이제 어느 누가 부를까요  
오늘은 편지도 쓰고 그림도 그렸어요 아버지도 그렸어요 내가  
그린 아버지 그림을 톡방에 올렸더니 아버지네 하고 막  
내가 바로 알아봤어요 아버지 사랑주셔서 고마웠어요  
제가 고3때 엄마와 교대로 부평전철역까지 마중 나오시고  
집으로 향했던 길이 생각나요 가끔 엄하게 말씀도 해주셨지  
만 깊은 사랑으로 인생의 지침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부탁하셨지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딸이지만 묵묵히 말  
씀도 없으시고 가정을 지키고 참아오심에 마음 깊은곳에서  
아버지의 고마움을 알고 있어요  
제가 아버지의 딸이여서 그런데로 제인생을 살아내는것 같아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갈께요  
다시 만나요 아버지 이구우씨

2025. 7. 4 10:20

사랑하셨던 딸 일순이가



000씨 oo아 실장님 쌤 팔 누나로 불려졌고 불러주는 oo에게

벌써 환갑이 지난지 1년이 다 되어가네 직장도 정년을 했네  
그 동안 좋았던 날보다 힘들었던 날이 더 많았지 그럼에도  
잘 지내온 것이 모든 환경이 사람들이 또 네가 그렇게 만들  
었을 거야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이제 보니 네 삶의 일부였고 해  
어져 나간 인연들 어쩌면 그 정도의 짧은 인연이었을 거야  
학창시절 배움에 심취하지 못하고 결과도 만족하지 못했지  
그렇지만 이제와 보니 그런거야 그랬던거야 다행스럽게 후  
회는 많이 안했지

가끔 널 보면 용기와 결단력이 부족한 생각이 든단다 그렇  
지만 그것도 꼭 좋은 결과가 오리란 보상도 없지 네가 할  
수 있는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네 마음 상하지 않을 때  
까지 네가 소중하잖아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도 네 몸과 맘  
이 상하지 않을 때까지만 해도 돼 그리고 너는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해도 돼 그리고 다른사람과는 되도록 아니  
정말 잘 지내야 돼 사랑하는 마음도 나누도록 해 많이 주면

받을 날도 있겠지

자! 이제 주저하지 말고 두 손을 활짝 열고 입을 크게 벌려  
웃으며 남은 인생을 베티고 잘 살아내야 해 파이팅!

2025. 7. 4. (금) 오전

일순이가 일순이에게



© 2025. 이일순



## 나의 어머니 김영희씨에게

안녕하세요 엄마

어머니가 요즘에 더욱 고향생각을 하시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언니들 올캐 언니들 얘기를 많이 하셔서 마음이 조금 아파요 사랑하는 손주들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일년에 몇번을 못보니까 정이 많이 가지 않지요

항상 자녀들 걱정하시고 그들이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어째든 생활 전선에서 각자 일을 잘 하고 있어요

화단 풀 뽑기가 힘드시다 말씀하시고 단독주택이라 팔리지가 않으니 어머니나 저나 안타까움으로.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 올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요 무슨 수가 있겠지요

반찬도 제 속옷도 이 나이까지 챙겨주시니 감사해요 정말 한량없는 어머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어머니도 항상 매일 행복하게 지내시길 원해요 노래도 부르시고 꽃도 피우고 맛난 것도 많이 해 드세요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전화 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존경 합니다 나의 어머니

김영희씨 부탁이 있어요 제 옆에 오래 계시는 거에요

2025. 7. 4. 11시

이쁜딸 일순이가



© 2025. 이일순

It's Okay with Jesus



## 나의 예수님에게

안녕하세요 예수님 제가 교회를 다닌지가 삼십년이 훌쩍 넘었어도 이렇게 부르니 교회 아닌곳에서 불러선지 낯선 느낌은 제가 믿음의 분량이 안되서인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어 좋아요 요즘 살아내는 것이 녹록치 않아서 예수님도 살면서 고난이 많으셨을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역하시기전요

사는 것이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지금의 저는 제가 선택한 인생이어선지 후회도 없고 아주 큰 만족감도 없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그 정도의 자유는 있었으니까요 지금 제게 말씀하시는 거 같으네요 '너에게는 더 많은 자유가 있고 할 수 있었어, 그런데 너는 지금의 너를 선택한 거란다'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게 자유가 있어서요 사람을 많이 사랑한 것 같진 않지만 이젠 성의를 다하려구요 시간이 걸릴수 있어서 건강하게, 서로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어요 많은 이의 기도도 많이 있겠지만요

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르게 서게 해주세요

2025. 7. 4(금) 오전에

언제나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께 일순이가 편지 쓰다



© 2025. 이일순



## 신애숙 권사님께

예쁘시고 활력있게 그리고 씩씩하셔서요 저에게는 긍정적인  
메세지를 주시는 분으로 제마음에 계세요  
항상 많은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구역식구들을 사랑으로 감  
싸주셨던 권사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힘들때 공감해 주셔서 근심을 털어버려 무겁던 마음도 가  
벼워졌었고요 권사님 자녀가 잘 되기를, 그리고 하시는 사  
업장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시는 분으로, 믿  
음 생활의 선배로 계셔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oo이가 편지 드립니다  
2025. 7. 11.(금) 오전에



## 나의 짧은 시절아

나의 부모님과 함께한 모란아

라일락도 지고 화단에 백합 필 때면 그때쯤 나도 피었지 화  
단 한모퉁이 초록잎 무성한 사이사이로 붉은진홍색의 아이  
얼굴만한 큰 꽃이 10송이 가량 피었던 거 같다

대학1학년때 인문교양 국어시간에 시 감상문을 제출하라고  
하여 고교 교과서에 나온 영랑의 '모란이 피기 까지는'을 제  
출하였고 나중에 받은 레포트에 성적이 'A+'로 적혀 있었지  
그성적을 기대 한 건 아니었는데 성적표시와 결과를 보고  
조금 놀랐지 예나 지금이나 공부를 치밀하게 하고 탐구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 정리를 하다 읽어보니 제  
법 잘 쓴 느낌 그리고 나서 또 수년이 흐른뒤 벼려서 지금  
은 아순 마음도 있긴 해 지금은 두 번째 영랑의 모란이야  
"내 한해는 다 가고 말아","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바로 그런 날들처럼 마음이 외롭고 갖고 있던 것이 사라져  
버리는 허무함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독 그래서 모란  
이 떠오른 거 같다 이제는 짧음이 지나간 시절이구나 "이젠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테야"는 슬픔의 봄이 아니야 아니  
야 행복의 봄을 기다릴거야  
어머니의 화단에서 내년 봄에 또 예쁘게 환하게 피워줘

2025년 7월에



© 2025. 이일순

# 이한나

/ 우리 뽕이~~  
/ 우리 귀염둥이 곰별냥  
/ 그리운 엄마에게  
/ 기특한 우리 똥이  
/ 35년 우정 내 친구 홍빵에게  
/ 한용운, 님의 침묵 中



## 우리 뽕이 ~~

친정도 시댁도 딸이 귀한 집안이라  
첫째 아들 낳았을 때는 다 잘 낳았다 축하를  
받았는데 둘째 아들 뽕이를 낳고는 다들  
딸이었으면 좋았을걸 하며 아쉬움을 표현하며  
우리 친정엄마가 뽕이를 볼때마다 저거는  
띠고 나오지 하며 서운함을 내뱉을 때마다  
외할머니가 뽕이를 싫어하는 줄 알고  
두 손으로 앞을 가리며 할머니를 피해 도망을  
다녔지 사실 뽕이가 싫은 게 아니고 앞에  
달려 나온 게 싫은 건데 그럴 때마다  
우리 뽕이가 무슨 죄가 있나 싶고  
딸로 낳아 주지 못해 너무 미안했어  
아들 귀한집에 태어났으면 축복을 받았을  
텐데 아빠가 딸만드는 재주가 없어서  
애꿎은 우리 뽕이만 맘 고생 시켰네  
우리 뽕이 아들로 태어 나게 해서 미안했고

딸처럼 예쁘게 낳은것도 미안해  
엄마는 딸이 아니여도 우리 뽕이가 태어나 줘서  
더 감사하고 행복해  
뽕아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거 알줘~~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살자

어여쁜 우리 뽕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 2025. 이한나



## 우리 귀염둥이 곰별냥

곰별이 처음 만났을때  
비가 억수 같이 왔던날  
물에 흠뻑 젖어 오돌오돌 떨고 있던  
모습이 지금도 가슴 시리게 아프네  
호흡기 질환이 너무 심해  
병원에서도 살가망이 없다고 해서  
엉엉 울며 내 가슴에 꼭 안고 집에 돌아오며  
곰별아 엄마랑 건강하게 오래 오래 같이  
살자 했더니 숨 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어  
하던 곰별이가 엄마 말에 대답하듯 아앙~~  
이라고 해줬을때 곰별이가 꼭 살겠다고 엄마한테  
대답 해주는거 같아서 너무 고마웠어  
두 오빠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많이 아파서 오빠들 치료했던 경험으로  
곰별이도 살릴수 있었고  
곰별이가 같은 질환으로 엄마한테 와준게  
지금도 인연인 거 같아

곰별이가 처음 왔을 땐 털도 다 빠지고 못난인줄 알았는데  
어느새 이쁘게 커줘서 지금은 슈퍼 모델  
냥이가 되었네  
아이구 너무 예쁜 우리 곰별이  
곰별이는 별명이 몇개지 ?  
말잘들을땐 별똥별  
말안들을땐 개똥별  
가끔 말썽 부려 놓고 야단 치면  
난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표정을 지으니  
웃음이 나와서 야단을 칠수가 없게 만드는  
귀염둥이 곰별냥  
웃음을 잃은 가족들이 곰별이 온 후부터  
한자리에 모여서 곰별이 재롱도 보고  
함께 이야기 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식구 4명이 돌아가며 곰별이 만져대는  
통에 우리 곰별이가 너무 귀찮다고  
아앙 ~ 아앙 하는데도 그것도 귀엽다고  
더 만지니 우리 곰별이는 앞발 편치를 날려대고  
요즘 곰별이의 앞발편치가 점점 새지는거 같아  
이러다 우리 곰별이 깡패 냥이가 될까 걱정되네  
기관지가 기형이라  
냥이는 냥인데 야옹을 못하고 아앙~~

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곰별이  
곰별이라고 해도 쳐다 보고  
똥별이라고 해도 쳐도 보는  
우리 곰별이는 이름을 알고는 있는걸까?  
곰별아 지금처럼 건강하게  
오래 오래 함께 잘살아보자  
곰별아 엄마가 너무 너무 사랑해~



## 그리운 엄마에게

엄마도 젊고 어여쁠 때가 있었는데  
엄마의 청춘은 왜 빨리 지나가 버렸을까  
내 기억엔 늘 아파서 누워 있는 엄마 모습만  
생각이 나네  
30년 넘게 아파온 엄마가 나를 볼때마다  
젊었을때 가꾸며 살라고 말을 했을땐  
그때는 그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엄마가 젊은날 가꾸지 못하고 살다보니  
나이 들어 아프고 늙어 가는게 모습이 너무 슬퍼서  
내 딸은 엄마 처럼 살지 말라는 거였구나  
엄마 내가 나이들어 아파 보니 이제야  
엄마가 해준 말을 알것 같아  
예전엔 왜 몰랐을까  
내가 나이 먹어 갈수록 엄마도 늙고  
우리가 이별해야 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엄마 떠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어

엄마랑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행복했고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  
아이들 키우느라 자주 가보지도 못하고  
엄마가 이렇게 빨라 떠날 줄 알았다면  
엄마 곁에 좀더 있어줄 걸  
엄마 외롭게 해서 너무 미안했어  
많이 챙겨 주지 못해서 더 많이 미안했고  
엄마 나중에 만나면 엄마 외롭지 않게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을께 엄마가 귀찮다고  
여길 만큼 딱 붙어 있을께 ~  
엄마나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내가 빨리 갈수가 없네  
우리 꼬물이들 키워 놓고  
나도 손주 좀 안아 보고 가도 되지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행복하게 잘 살다 만나자  
엄마 사랑해 ~ ♥  
엄마를 그리워 하는 딸램이가 ~~



© 2025. 이한나



## 기특한 우리 뚱이

어려서 희귀병을 앓고 고생 많이 했던 우리 뚱이 힘든병 이  
겨내고 건강하게 잘 자라 주어서 엄마가 너무 고마워 ~~  
건강해진 우리 뚱이를 보니까  
엄마가 자꾸 욕심이 나서 공부하는게 힘들다고 할때마다 더  
열심히 하라고  
강요했던 것도 너무 미안했어

엄마가 많이 못 배운 탓에 뚱이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게 너  
무 없으니까  
우리 뚱이가 몸도 아픈데 남들 보다  
많이 뒤쳐지면 세상 사는데 힘들어질까 봐서였어  
엄마가 걱정이 앞서서 뚱이를 많이 힘들게 했던 거 같아서  
미안했어  
공부 대신 알바한다고 해서 내심 잘할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힘들게 알바해서 번 돈으로 엄마 용돈도 주고

뚱아 ! 너 어느새 이렇게 컸니 ?

힘든데도 주말마다 일찍 일어나서 알바 나가는 모습이 안쓰  
럽기도 하고

듬직하고 우리 뚱이가 너무 기특하고 고마운지 모른단다  
엄마가 이제는 뚱이 한테 욕심 안 부리고 뚱이가 잘할수 있  
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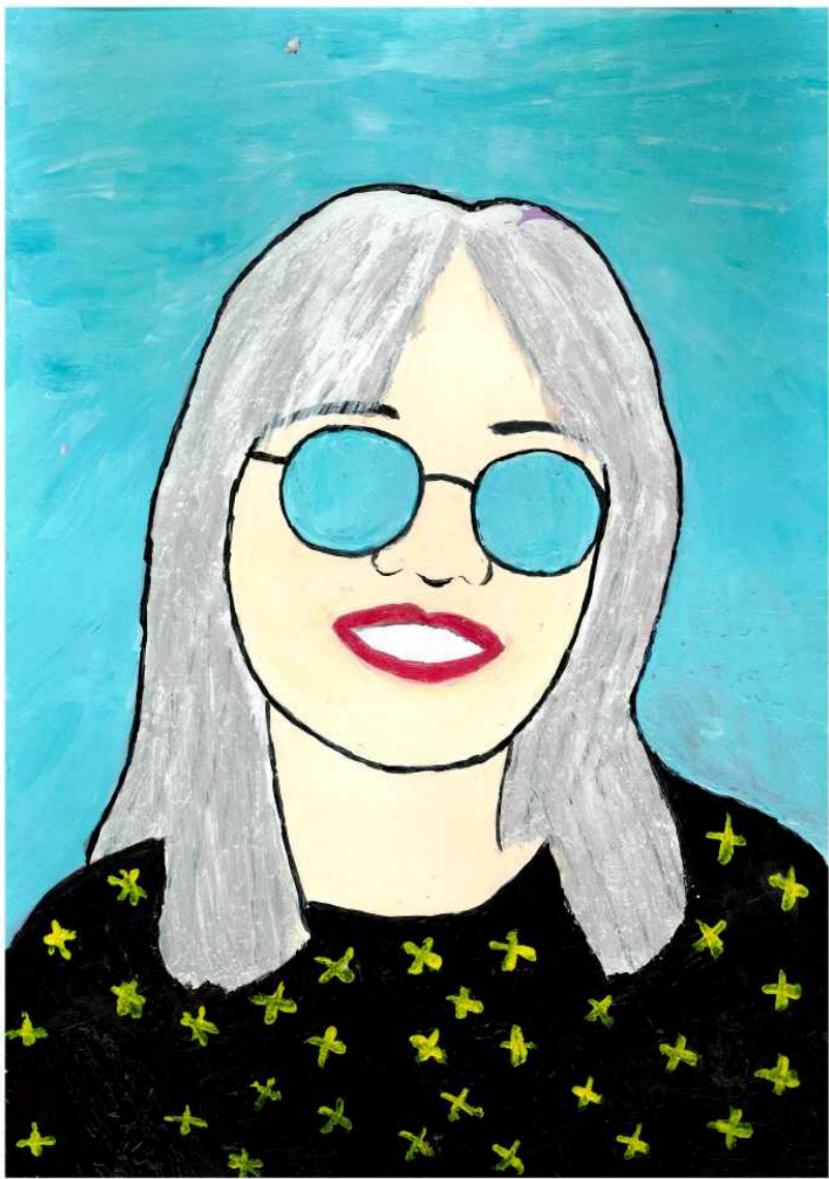
믿고 기다릴께

뚱아 지금 처럼만 아프지 말고 착하고 이쁘게 잘자라줘 ~~  
엄마가 부탁할께

뚱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



© 2025. 이한나



## 35년 우정 내 친구 홍빵에게

홍빵아 ~~

우리 만난지 벌써 35년이나 되었구나  
중학교때 운동하며 처음 보았는데 서로 라이벌  
학교라 맘편히 대화도 못하고 눈팅으로만  
인사를 나누기만 했었지  
그때는 빵이가 도도하고 4가지가 없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에서 만나서  
보니 세상 순하고 착한 아이였다는 걸 알게 되었지  
항상 밝게 웃는 네 모습을 보고 나면 내 기분도  
좋아지고 함께 있으면 하루가 평온했었어  
고등학교 졸업 하고 삶이 바쁘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보낸 시간  
동안 우린 어느새 50이 되어가네 ~~  
아이들 키워 놓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나 보다  
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보려 했는데  
내 몸도 고장이 나서 여기저기 수술하고

아프다는 평계로 빵이한테 자주  
연락도 못하는 동안 빵이가 암수술을 했다는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메어지더라 ~~  
큰 수술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옆에 있어주지 못한  
미안함에 한없이 울기만 했어  
좀더 빨리 연락할걸 좀더 잘해줄걸 후회가 많이 되었어 앞  
으로는 곁에 있을때 좀더 챙겨 주고  
아껴 주어야겠구나 라고 다짐을 했어  
빵아 아프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서 잘살아보자  
빵이가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 같이 있어주어서 너  
무 고마웠고 지금도 네가 늘 함께 있어 주는 것에 감사해하  
며 살고 있어  
내가 쑥스러워서 말로는 표현을 잘 못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빵이는 눈치가 둔해서 잘 모르는 거 같아서  
내가 가끔 서운하다고 투덜대야 알더라  
투덜대고 나면 괜히 말했다 싶고 후회가 되더라  
아픈 빵이에게 상처를 준것 같아서 미안하고  
속상했어 앞으로 내가 우리 빵이 아프지 않게  
하고 싶은 말도 아끼고 조심할께

빵이랑 30년 더 살아야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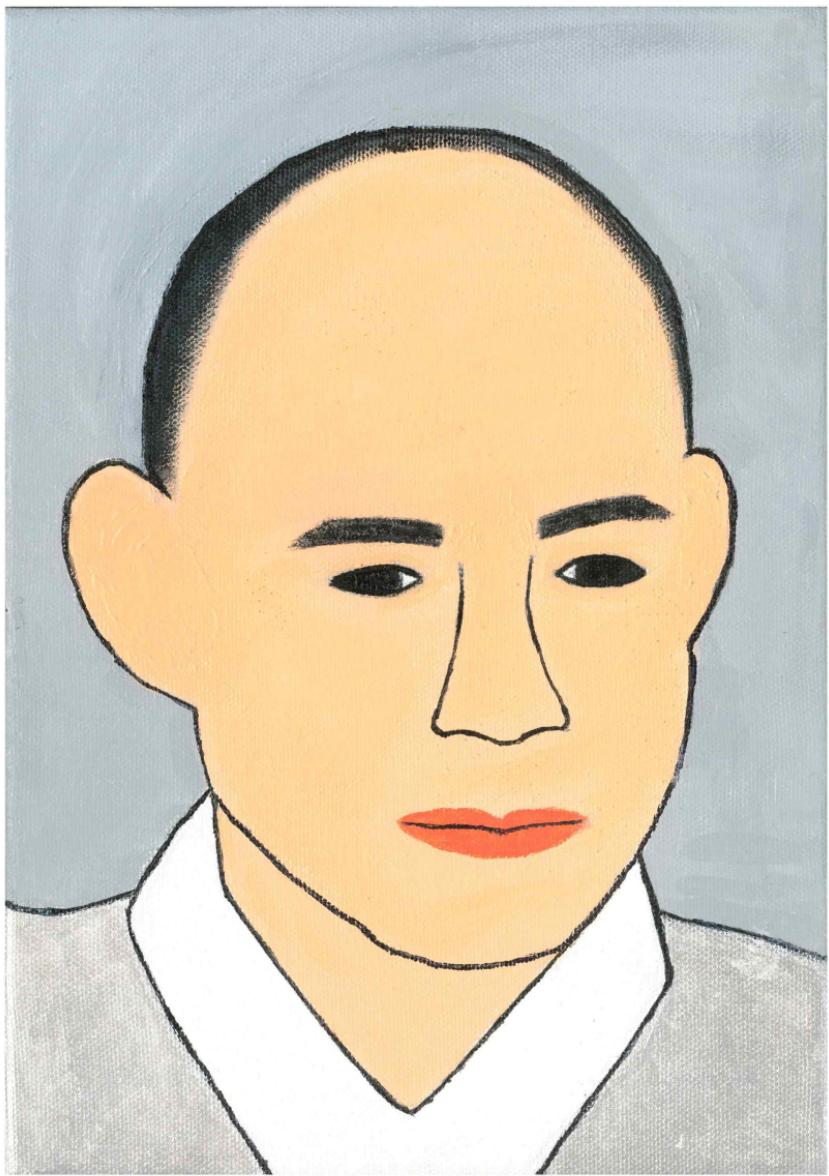
빵이를 아프지 않게 살살 ~~

잘 보살펴 줄께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마음 변치 말고 30년

쭉 ~ 잘살아보자

홍빵을 사랑하는 한나가 ~~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님은 갔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中

# 정부회

/ 나는 행복한 사람  
/ 사랑하는 나의 딸  
/ 사랑스러운 우리 며느리  
/ 못생긴 나의 손  
/ 고무줄 바지  
/ 민들레  
/ 박완서, 고무줄 바지 中



## 나는 행복한 사람

### 정 부 희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하다.  
이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던 거 같다.  
나이를 먹고 몸이 불편한데  
행복하다고 하니 이상하다 하겠지만  
젊고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남편과 손잡고 공원 산책할 때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생활이 너무 바빠 꽃이 피는구나...하고  
돌아보면 실록이 우거져 있고.  
실록인가? 했더니 노란 단풍이. 그리곤.  
하얀 백설이 날리고 있었다.

22살 어린 나이에 결혼해  
시동생 둘.시누이 하나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있었다.

우리 아들 딸 대학 졸업시켜 결혼시키고 나니

우리 부부는 어느덧 백발이 되어 있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열심히 살았고.

이제는 살 만 하구나 했더니

남편은 뇌출혈. 나는 암.....

그래도 다행히 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남편과 나는 서로의 손을 잡고 의지하며

여생을 즐기고 있다.

산에 올라갈 때는 꽃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바쁘게 살 때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인다.

아주 작은 새싹도 예쁘고 어떤 것을 보아도

요것이 이처럼 예뻤던가 예전엔 몰랐었다.

세상이 모두 달라 보인다.

모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여생 남편과

자연을 벗 삼아 즐기며 살고 싶다.



© 2025. 정부희



## 사랑하는 나의 딸

### 정 부 희

사랑하는 엄마의 딸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딸

딸아. 모녀의 인연은 전세에 몇 대에 이어서 맺은 인연이란다.

우리 딸은 어렸을 적부터 너무 너무 똑똑해서 엄마를 많이 기쁘게 했지.

딸은 엄마에 꿈이자 희망이였지.

우리딸 때문에 엄마는 많이 많이 행복했어 항상 고마웠어.

이제 우리 딸도 나이가 오십이 가까워지고 있네?

엄마는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에 와서 알게 되었단다.

행복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는 것을.

아무리 내가 천국에 있어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이라는 것을.

그리고 행복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것을 .

엄마는 지금이 천국인 거 같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딸도 엄마 생각과.

같을 거라 믿어.

사랑하는 나의 딸.

엄마는 우리 딸을 항상 믿고 있어

딸에 앞날을 항상 응원할게.

앞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자.

사랑하는 우리딸... 항상 행복하자.



© 2025. 정부희



## 사랑스러운 우리 며느리

사랑하고 예쁜 우리 며느리

꽃처럼 예쁜 네가 엄마의 며느리가 된 지도  
어느덧 이십일년이 지났구나.

참 빠른 세월. 예쁘고 가녀린 네가 우리집에 시집 와  
시부모 공경 잘하고 남편 또한 내조 잘하고 듬직하게 손주  
도 낳아주고

너처럼 예쁜 손녀도 낳아 모두 잘 키워줘서 항상 고맙다.  
예전에 너희 친정어머니 세상 뜨셨을 때 많이 슬퍼하는 너  
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말했었지. 너희 친정엄마 못까지 내가 다 해줄게.....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구나.  
이제라도 우리 모녀처럼 잘 지내자. 예전엔 내가 일한다고  
항상 시간에 쫓겨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시간이 많으니  
우리 즐겁게 여행도 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살자.  
우리 며느리 사랑한다.



## 민들레

길가에 편 노란 민들레

민들레야 넌 어디서 왔니?

꽃씨를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아주 예쁘게 피었구나.

메마른 길가 돌틈 사이에서도 넌 언제나 환하고 예쁘게

너의 모습을 뽐내듯 자랑하고 있구나.

너에 작고 예쁜 모습을 누가 보러 오지 않아도 너는 항상

웃으며

“나 좀 보고 가요! 나 예쁘지 않나요?

하며 나에게 말을 하는 거 같아 그래서 나는 가던 길을 멈

추고

예쁜 너를 보고 가지..

민들레야 너는 꽃말도 참 예쁘더라

”감사와 행복“ 그리고 내 사랑을 당신에게 드린다

얼마나 예쁜 꽃말이니...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 사랑을 당신에게 드린다 하니

너를 보는 나는 너무 너무 행복하구나.

민들레야 너는 올해 엄마 꽃으로 할인을 미치고  
흘씨 가 되어 바람 부는 테로 온 세상에 나가 다음 해에는  
더 많은 꽃으로 우리 곁에 감사와 행복을 전달하러 오겠지?  
민들레야 다음 해가 기다려진다.  
우리 다음 해에도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또 만나자.  
민들레야 사랑해...



© 2025. 정부희



## 못생긴 나의 손

정 부 희

크고 거칠고 못생긴 나의 손

고맙다. 71년이란 세월을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항상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고생 많았다.

종갓집 장손 며느리 노릇을 손 네가 다 했지. 지금도 생각이  
난다.

내가 새댁일 때 시댁 작은아버지 말씀하셨어  
“우리 큰 질부는 손이 커서 잘 살 거야”라고  
작은 아버님은 장손 며느리라고 나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고마움을 지금도 잊지 못해  
그런데 나의 손아, 너를 너무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해.

항상 고생만 시키고 예쁘게 지켜주지 못했어  
그러면서도 내 손은 예쁘지 않아서 부끄럽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단다.

이제부터는 너를 많이 사랑할게. 손톱을 길게 단장하고 매  
니큐어는 못 할지라도 항상 핸드크림은 발라주고 예전에 사

놓고 끼워주지 않던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반지는 꼭 끼워  
줄게.

그리고 앞으로 나와 함께 많이많이 사랑하며 즐겁게 살자.  
크고 거친 내 손 사랑해.



© 2025. 정부희



나이가 드니 마음 놓고 고무줄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편한 대로 헐렁하게 살 수 있어서 좋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할 수 있어서 좋다.

다시 짊어지고 싶지 않다.

안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짊음과 바꾸겠는가.

다시 태어나고 싶지도 않다, 난 살아오면서 볼 끌 못 볼 끌 충분  
히 봤다.

한번 본 거 두 번 보고 싶지 않다.

한 번이면 충분하다 한겹 두겹, 어떤 책임을 벗고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을 음미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소설도 써지면 쓰겠지만 안 써져도 그만이다.

— 박완서, 고무줄 바지 中

정지은

/ 아름이에게  
/ 혜진이에게  
/ 차차에게  
/ 저어새에게  
/ 은주야 안녕



## 아름이에게

며칠 전에 우연찮게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 편지로 표현하고 싶었거든

우리 가족은 낚시를 하러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이었어. 집에 가는 길에 어디 더 둘러볼 곳 없을까 네이버 지도를 보며 찾던 중 근처 수목원이 있더라, 마침 날씨가 따뜻해질 즈음이라 꽃도 좀 피지 않았을까 싶어서 들리기로 했지

차에서 내려 수목원 입장표를 끊는데 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

예전 네가 일하던 수목원을 10년 전엔가 놀러 간 적이 있었지. 근데 여기가 거긴가 싶다가도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 데자뷰일 거야 하고 넘겼거든.

들어가서 여기저기 신나게 구경하고 빨이 아프고 덥기도 해서 매점에서 쉬어가자 하고 매점에 들어갔는데

글쎄 니가 거기 있잖니?

맨 처음에는 내 친구랑 비슷한 느낌이네 했는데.. 니가 날  
알아보고 반가워서 깜짝 놀랐어 진짜 반갑더라

우리 4~5년만에 본 것 같은데 10년 전에 너 여기서 일했었  
잖아 나도 며칠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근데 여기서 일 그만둔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1년  
전부터 일하고 있다 하고 아이스크림도 한번 더 주고

맛있게 잘 먹었어 아이스크림 쫀득하고 맛있더라 물론 꽁짜  
로 받은 아이스크림이니까 더 맛있었지

생각지도 않게 만나서 더 반가웠어. 우리는 더 친해질 운명  
인가 봐 라는 생각도 해보고

계획적으로 수목원을 들른 게 아니었는데 또 네가 거기서  
일하고 있고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해서 좋았다

다음에 시간되면 또 보자~



© 2025. 정지은



## 혜진이에게

오랜만이라고 인사해야 할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더라, 그리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

나는 오래 다닌 회사에서 해고되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배우며 지내고 있어. 이렇게 여유  
롭게 지내도 되나 싶게 즐거운 나날이야

해고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생  
각보다 살만해

월 수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수업을 다니고 있고, 목요일  
은 학부모 작가교실이라고 여럿이 에세이를 써서 엮은 책이  
나올 예정이구, 금요일은 글과 그림으로 편지쓰기라는 프로  
그램을 하고 있거든

글과 그림으로 편지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

고 신청해야겠다 생각했을 때, 문득 너를 떠올렸어

너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거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한 그 편지를 실제 쓸 때가 왔다 생각했어

때는 바야흐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

남편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힘들어지고 우리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마땅치 않았어. 그래서 너에게 돈을 꾸게 된 거야.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다니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고 죽기보다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해도 회사는 나아지지 않았고 1~2개월 안으로 갚기도 한 돈을 5년이 걸려 다달이 조금씩 갚게 된 거야

아무튼 우리 집 사정은 계속 안 좋아지고 다달이 갚기로 했지만 여러달 전혀 못 보내고 있던, 그 즈음 어느 날이었어

나는 술을 마시거나 삶에 약간 틈이 있을 때 너에게 전화하고 싶을때가 있어 어떻게 지내는지 별일없이 지내는지

딱히 할 말이 없어도 시답잖게 그럴 수 있는데 그때는 악성 채무자이고 너는 채권자 입장이니까 연락을 못하겠는 거야.

그때 속상했어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 너에게 말을 건네는 거야

그럼 좀 풀리거든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니

마지막으로 남은 돈을 너에게 이체하고 전화했을 때 그날은

너의 생일이었어.. 네가 말해줘서 알았지

이제 지난 일이니 가볍게 얘기 건네며 하하호호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봐봐 하고싶은데 못 할때는 엄청 억울해

근데 별 문제없이 그냥 하면 되는데 얘기 꺼내는 게 잘 안 되는거지

그러다가 때가 되어 편지를 보낸다는 이야기야 재밌지 않니

나만 재밌나

아무튼 그땐 그랬어

잘 지내구 담에 또 보자

베프 혜진이~



## 차차에게

차차야 안녕,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너는 못 읽고 못 느끼더라도 언니는 보고 느낄테니까 한번 써 보련다.

저번에 언니 집 방문했을 때 검정 포메라니안인 너를 만났지. 너는 1시간이 넘도록 짖어댔다.

나는 사실 네가 엄청 반갑고 잘 지내고 싶었는데 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금방이라도 물 것처럼 으르렁댔잖아 안절부절 못하고 좋아하는 방식에서도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그 래

나는 너와 친해지고 싶어 보드라와 보이는 복실한 톤도 만지고 싶고 너에게 무해하다고 눈과 눈도 마주치고 오래토록

내 마음을 숨김없이 다 보여주고 싶은데 안타깝다. 네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렇게 짖어대진 않았을 거야

네가 너무 경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너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너 있는 공간으로는 눈초리도 안 보냈거든

언니 집이 가깝지도 않아서 자주 볼 수도 없는데! 부디 다음 만날 때에는 조금 덜 짖고 덜 불편해하고 네 집처럼 편하게 있길 바란다. 진짜 니네 집이니까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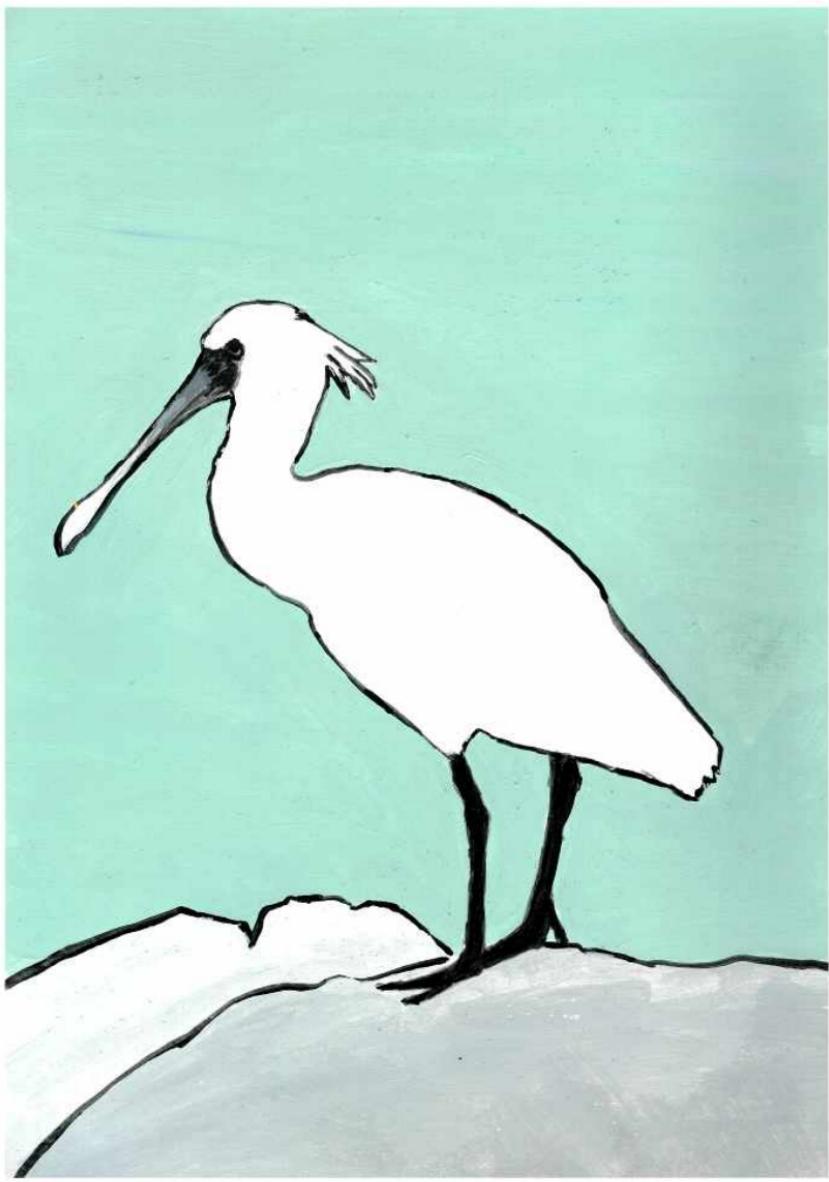
나에게 곁을 내어준다면 더 좋겠지.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걸 바라진 않을께

시간이 흐르면 좀 좋아질까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얼마든지

1년이고 2년이고 언젠가 가까워지길 바라며 이만 쓴다. 안녕~



© 2025. 정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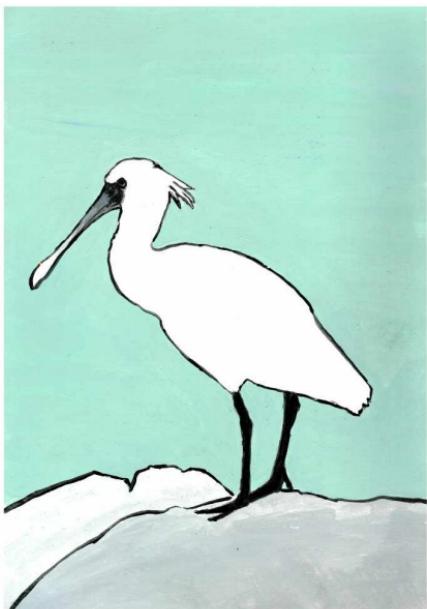
## 저어새에게

안녕, 애칭도 없이 부르니까 조금 딱딱하다  
회사 옆 유수지에 해마다 오는 너에게 편지 써본다.  
오랜 경력단절을 뒤로 하고 동막역에 있는 회사에 출근하며  
너를 알게되었어.  
해마다 3월이 오면 네가 오고  
다시 11월이되면 너는 따듯한 대만 등지로 떠나갔지  
그런 너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에세이 수업때 너를 주제  
로 삼아 좀더 알아보게 되니  
좀 더 친근한 느낌도 들고 그래. 7월이면 한참 새끼가 알  
을 깨고 육아에 열심일 때이겠구나.  
회사 가는 길, 폐수를 가득 채운 트럭이 대교 양옆에 자리잡  
아 있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  
나는 신고할 줄도 모르고 그 차들은 항상 운전석에 사람이  
있어서 차마 사진을 몰래 찍을 수도 없어  
나는 그냥 어떤 적극적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응원하는 거야..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 활동했어야 했는데,,,

너구리랑 민물가마우지등 너의 보금자리를 해치는 모두에게  
저주 퍼붓고 싶다.

좀 더 너의 보금자리가 따듯해지길 기도할게. 사랑해~



© 2025. 정지운



## 은주야 안녕

일주일 전에는 아빠 생신이었고 어제는 내 생일이었지 그리고 일주일 뒤면 은주 생일이네?

아빠 생신때는 편지 썼던데 왜 내 생일에는 안주는지? 그렇지만 너를 용서한다. 덤으로 편지도 쓴다.

우리 요근래 안좋았잖아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엄마도 힘들었어. 너도 힘들었지? 그래도 편지는 써야지 안 그러니?

각설하고 이번 일로 엄마도 깨달은 게 있어 엄마는 은주 말만 듣고 아빠랑 다투게 되었잖아 근데 거짓말했다고 은주 아빠한테 혼났지.

엄마도 은주 사랑하고 아빠도 은주 사랑해

우리 너무 서로를 사랑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엄마가 은주 말만 듣고 그런 건 은주가 세상을 살면서 이쁨만 받고 캤으면 해서 그런 건데 엄마가 제3자 입장으로 듣고 의문을 품고 이의를 제기해야 했어. 근데 엄마는 가지가 안으로 굽듯이 오냐오냐했지.

반대로 아빠가 은주가 바르게 잘 크길 바래서 은주를 혼낸  
거고, 은주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래서 그런 거야.

엄마의 행동은 약이 될 수가 없어. 은주가 그 점을 깨닫고  
아빠와 엄마를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더 사랑하  
고 행복한 우리집이 되었으면 좋겠어. 서로 잘 하면 되겠  
지?

그럼 우리 하루하루 더 사랑하며 잘 지내자  
은주야, 사랑해~



© 2025. 정지은

# 최영애

사는 일이 고역일수록 죽는 일을 생각하게 된다.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라도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신분의 귀천 없이 모두가 천주 앞에 공평한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부터 그들에게는 놀라움이다. 스물의 청춘이든 팔순의 노인이든 사랑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순수해져 믿음은 가슴에서부터 자리했고 머리로 생각하거나 교육받은 것보다는 확고했다.

/ 혜정에게  
/ 사랑하는 영미에게  
/ 사랑하는 엄마에게  
/ 영원한 내편 임준수에게



196

## 혜정에게

너를 갖고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하며 10개월을 보냈어.

내 몸에서는 입덧이라는 새로운 병이 생겨서 모든 음식을 거부했지.

하도 못 먹어서 아이가 너무 걱정되고 마른 아이로 나올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 통통하고 예쁜 아이가 나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창밖에서는 하얗게 함박눈이 내리더라고 하늘도 너의 탄생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

크면서도 정상적으로 잘 크고, 매 순간 엄마는 너의 모습을 보며 천재를 낳은 줄 알았어.

3살밖에 안 되었는데 마이크만 보면 노래를 하는 거야. 그리고 부끄럼도 안 타고 노래 시키면 발음을 잘 안되는데 노래를 하는 거야 참 신기했어.

엄마 아빠는 음치인데 너는 외할아버지 유전자가 네 몸에서 활동하는 게 보이더라고

초등학교 입학해서도 "태양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는 학급 문집 표지에 너의 그림이 실려서 엄마를 기쁘게 했어.

담임 선생님이 처음 발령받아서 첫 학생들이니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어. 하여튼 그때부터 선생님 복이 많이 있는 아이로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잘 커줬어.

가정 형편도 안 좋았는데 너의 꿈을 찾아서 어렵게 아르바이트하며 성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네가 하고 싶은 길로 가고 있지.

네가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성당 가서 기도 하는 것밖에 없었어. 힘든 시기 잘 견디고 남편 만나서 귀여운 민채 낳고 잘 살아서 고마워. 엄마는 매일 너희 가정을 위해 기도한단다. 너도 매사에 감사하고 평화 속에 행복한 가정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도록 해라.

혜정아, 비바람 천둥번개가 치고 뜨거운 태양이 알찬 곡식을 여물게 한단다. 온실에서 자란 채소는 맛도 없고. 금방 시들고 영양도 덜해.

혜정이가 살아갈 날들이 아직 많이 있어. 앞으로도 고난이 오면 피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잘 해쳐나가길 바란다. 혜정이가 엄마 딸이어서 참 좋아. 우리 딸 항상 응원할게. 사랑한다.

2025. 8. 9

사랑하는 엄마가



© 2025. 최영애



## 사랑하는 영미에게

우리 영미 볼 때마다 무거운 어깨가 벼겁게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어. 혼자 아이들 건사하며 씩씩하게 잘 살아내는 모습이 대견했어.

애써 울지 않으려는 씩씩한 캔디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 힘들어도 하소연하고 기댈 사람 없는 네가 안타깝고 가여울 때가 많았어. 언니가 돼서 도움 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언니도 형부가 있어도 책임감이 없어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식구가 많아서 나도 살기 참 힘들었어.

그래도 유인이 잘 치유되고 힘든 일 겪어내고 한시름 놓아서 조금은 걱정이 덜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

여려서 나를 잘 따르고 내가 엄마라도 되는 듯이 의지하고 쫓아다녔지. 군것질도 하고 싶어서 사 달라고 했는데 사 주었으면 좋았을걸 그걸 안 사주고 참 인색하게 굴었어.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하고 항상 휴게소에 들르면 사 먹는 네가 볼 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애뜻하고 찡해 온단다.

광명 2리 산골에서 살 때 아버지 따라 산속에 갔는데, 어둑

하니 저녁 무렵에 언니 찾아온다고 무덤이 많은데도 무서움 무릅쓰고 언니 찾아서 오다가 산속에서 길을 잊고 혜맨 적이 있지. 언니하고 울며 부르고 찾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도 많이 무서웠는데 영미가 찾아와 줘서 어린 마음에 얼마나 고맙고 안심되었는지 몰라.

엄마랑 빨래터에서 모자 빨다가 깊은 물에 빠진 일. 지금도 가슴이 철렁하다. 우리 영미는 죽을 뻔도 많이 했어.

엄마를 많이 닮아서 동네에서 이름난 예쁜 아이였어. 지금도 미인이지만.....

개울에서 가재 잡고 수수깡 먹다가 입이 베어서 엄마한테 혼나던 일 정말 재미난 일 참 많았어.

영미야, 우리는 가장으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힘겹게 열심히 살아왔어. 이제는 일도 조금만 하고 건강 살피면서 재미있게 여행 다니며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어려운 시기를 같이 살아내고 보내서 남다른 다른 형제보다 더 끈끈한 자매인 것 같아. 항상 나이 들지 않고 뛰어놀던 어린 시절일 것 같은 마음이 벌써 환갑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어. 인생 무상이지. 두 아이 훌륭하게 잘 키워 내고 가정도 잘 지켜내서 영미가 기특하고 대견하다.

영미가 아프다고 하면 더 마음이 아프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속상해. 우리 각자 건강 잘 돌아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자. 언니가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영미 미리 환갑 축하한다. 사랑해.

2025. 8. 11.

사랑하는 언니가



## 사랑하는 엄마에게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단아하고 전형적인 동양 미인이었어. 그래서 한복이 참 잘 어울렸어. 아버지도 그런 엄마가 한복이 잘 어울린다고 잘 사주셨어.

그런 예쁜 우리 엄마가 막내 낳고 3일 만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산후조리를 못해서 중 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가 있었어.

내 어린 시절은 항상 아픈 모습으로 누워있고 엄마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슬픈 아이였어.

아버지는 아픈 엄마를 살리려고 백 방으로 병원이고 약을 찾아다니느라고, 우리는 안중에도 없었어. 내가 국민학교 입학했는데 아버지가 자전거에 싣고 데려다 주고 몇 번 그러더니 혼자 다니라고 했어. 집에 오는 길이 얼마나 멀고 무서웠는지 몰라. 그때 못 먹고 주눅이 들어서 키도 못 크고 한쪽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는데 엄마는 키 작다고 구박할 때가 있었는데, 참 서럽고 슬펐어. 내가 를 때 영양이 부족해서 못 컸는데 엄마는 할머니닮아서 못났다고 하면서 조

통했어.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반겨주면 좋았을 텐데, 엄마는 항상 아파서 누워 있거나 건강이 더 심해지면 외갓집에 가서 없을 때가 많았어.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산속에서 밥도 못 먹고 어린 것이 얼마나 배고프고 무서웠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도 어린것이 그렇게 무섭고 외로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까마득해.

커서도 엄마는 항상 아프고 그렇지 않으면 일밖에 모르는 아버지 따라다니느라고 살림을 못했어.

나는 엄마 대신 오빠, 동생들 도시락 5개씩 싸고 아침밥 해서 먹고 학교 다니고, 일요일이면 빨래하고 설내화, 운동화 10 켤레씩 빨면서 학교 다녔어.

큰딸로 사는 세월이 참 힘들고 벼거웠어. 이기적인 아버지 피하고 직장 생활하기 싫어서 시집을 갔는데 책임감 없고 매사에 무능한 신랑 만나서 아이들 키우며 먹고 사느라고 참 힘들었어.

엄마는 내가 강화에서 농사 짓는다고 미련 맞게 고생 사서 한다고 하는데, 난 농사지으며 땅 냄새 맡고 땀 흘린 보람으로 부족함 없이 수확해서 맘껏 나누고 먹는 게 좋고 삶의 탈출구야.

엄마가 강화 땅 오빠 보고 맘대로 하라고 해서 얼마나 서럽

고 속상했는지 몰라.

그때 시흥에 있는 땅 사서 농사지을 생각으로 산을 산 거야.

엄마는 시궁창 샀다고 조롱했지만 나도 뜻뜻하게 내 땅에서 보란 듯이 농사 지으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했던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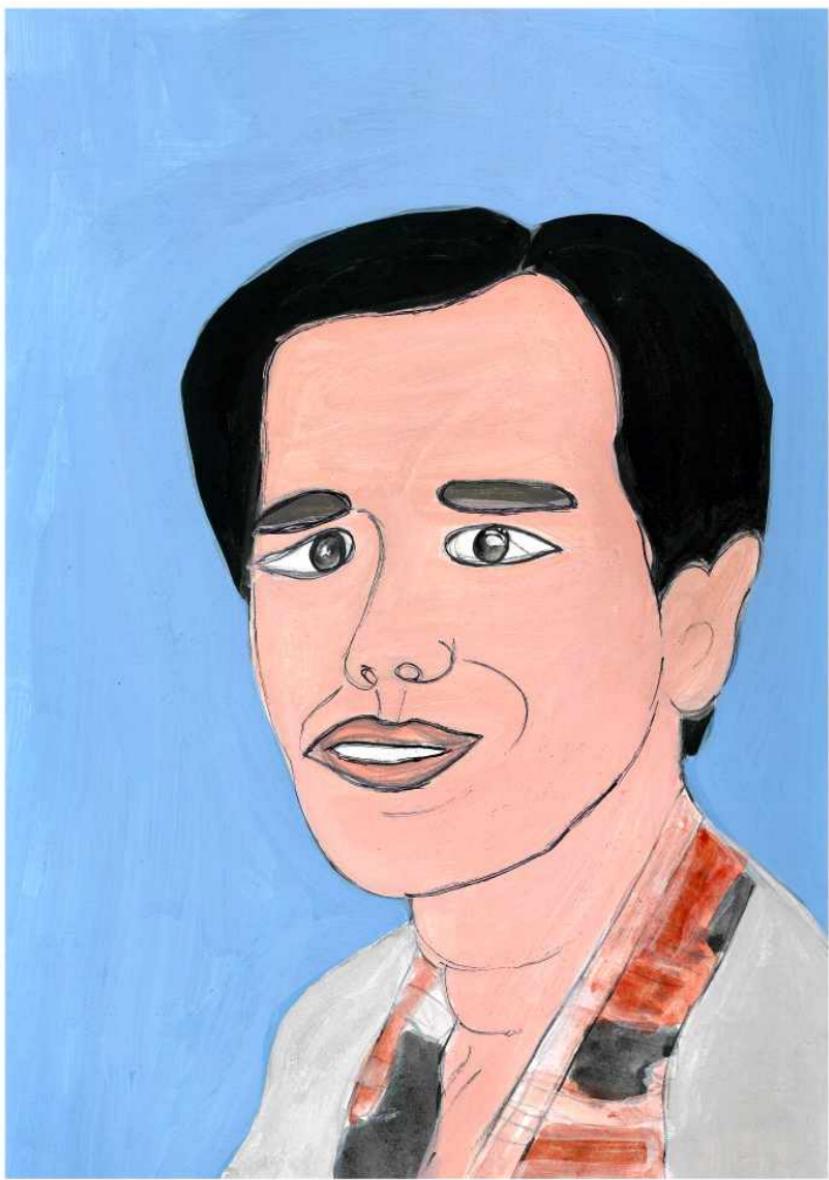
엄마는 나한테 항상 아픈 사람이라서 내가 돌봐야 하는 마음이 있어.

요양병원 실습하며 외출도 맘대로 못하고 면회도 못하는 것을 보고 엄마가 아무리 아파도 요양원에 안 모실 거라고 마음으로 다짐을 했어.

내가 얼마 전에 엄마한테 내 마음 몰라 준다고 한 게 마음에 걸리지만, 지금도 변함이 없어. 난 엄마가 항상 걱정되고 쟁겨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엄마는 막내나 오빠만 생각해. 내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프고 마음이 아팠어. 오빠는 엄마가 조금만 심각하게 아프면 요양원에 모신다고 말하고 있어.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엄마랑 같이 살면서 엄마랑 밥 해서 같이 먹고 여행도 하고 맛있는 거도 먹으러 다니고 행복하게 같이 할 거에요.

사랑해요 엄마 오래 오래 건강하세요.



## 나의 영원한 내편 임준수에게

나 만나서 고생 참 많지요.

성격이 강하고 멋대로 하려는 독불장군 같은 성격이라서 당신이 많이 힘들었을 거로 알고 있어. 하지만 가정을 책임지고 아이들 잘 키워내기 위해 억척스럽게 일하고 나 혼자 일 처리하고 결단 내리고 했던 거에요. 당신도 나를 잘 알기에 따라와 주고 도와줬던 거로 알고 있어요.

내가 당신 입맛에 맞게 음식을 못 해줘서 속상해하지만, 내가 해주면 자기 입맛에 맞게 고쳐서 먹으니까 스스로 해 먹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조금 미안하지만 당신한테 미루고 있어. 가끔은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동태찌개, 꽃게탕, 갈치조림 이런 음식 당신 입맛에 맞는 거로 해 줄게요.

당신 나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나세요?

깔끔하게 머리도 하고 반듯하게 양복 잘 차려입은 당신 모습이 멋있었어요.

그런데 어딘지 어색하고 나와는 안 맞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없었던 일로 하려고 마음먹고 우리 쪽 중매쟁이

통해서 약속을 취소했는데, 어찌하여 당신 쪽에 전달이 안 됐는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서로 안 맞는다고 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운명인 거 같아요. 아마 하느님 앞에서 혼인 성사를 해서 그런지 아무리 헤어지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나한테 매력을 못 느끼고 여자 같은 나근나근한 여성스런 맛이 없어서 그랬는지 당신이 나한테 우리는 부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로 당신이 매정하고 남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정이 떨어지는 소리를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는지 몰라요. 온 몸을 다해서 자식 키우고 살림 하며 내 짊음 다 바쳐서 살았는데 매력이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 참 억울하고 분했어요.

몇 번을 이혼 하려고 법원까지 갔었는데도 결국은 이혼을 못했어요. 그런 내 마음 아는지 나를 시험하려고 그랬는지 당신이 암이라고 했어요. 느낌도 꼭 아버님 같이 온 몸에 황달이 생기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정말 암 환자 같은 신호가 왔어요.

당신이 암 선고를 받고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너무 많이 잘못해서 속죄할 시간을 달라고 하느님께 울면서 매일 기도 했어요.

기도가 먹혔는지 암이 아니고 단순 염증이라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진으로 허무하게 장기를 다 잘라내서 지금도 고생을 받고 있잖아요.

올해 초에도 폐렴과 폐혈증 중간 단계로 심각해서 중환자실에 실려갔지만 이렇게 살려 주셨어요. 그때도 온 식구가 당신이 마지막인 줄 알고 마음을 졸이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퇴원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당신 삶에 하느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희망이 없는 소리를 자주 해서 우리 지수, 혜정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죽고 사는 거는 하느님 영역인 거 같아요. 이렇게 죽을 고비 많이 넘겼어도 살아있잖아요. 죽어야 죽는 거니까 지금부터 죽는다는 소리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낙담이 돼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고 믿고 의지하는지 모르지요! 당신이 암이라고 진단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았고 나 혼자는 살아갈 이유도 의미도 없어서 내 인생도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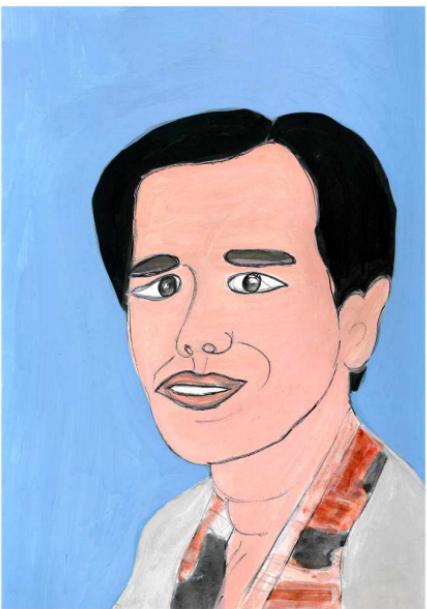
병원에서 당신이 투병할 때 자기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살려 달라고 눈만 뜨면 울면서 기도했어요. 내 기도가 효력이 있었는지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하느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결혼한 지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동안 참 힘든 세월 잘 참고 넘겨왔어요. 당신이 근력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하나도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여행을 못해서 안타깝게 좋은 추억을 많이 쌓지 못하지만, 남은 세월 서로 위하여 행복하게 살아요. 나나 당신 모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운전을 무서워하고 미숙하게 차선 바꾸기 할 때 깜빡이 켜고 못 들어가니까 뒤에서 다른 차 못 오게 하고 안전하게 들 오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든든해 보였는지 몰라요.

우리 이렇게 서로 위하여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줘요.

2025. 8. 13

사랑하는 사람이



© 2025. 최영애

# 황은영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어렵고 힘든 길이 있을지라도  
낙담하기보다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취미를 발견하면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 예쁜 내딸 예린이에게  
/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엄마에게  
/ 우리집 장남 건우에게  
/ 샤크스타 데이지에게



## 예쁜 내딸 예린이에게

예린아~ 안녕 ^ ^ 엄마야

우리 예린이 엄마가 진짜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건우 낳고 한번 유산이 있은 후에 태어난 딸이라 예린이는  
존재 자체로 참 귀하고 소중해

어느날 꿈속에서 커다란 복숭아를 한 개 손에 들고 있었거  
든 얼마나 예쁘고 탑스럽고 먹음직스럽던지.. 아까워서 먹지  
못하고 감탄을 하면서 바라보다가... 달콤한 향에 취해서 그  
만 복숭아를 크게 한입 앙~ 베어 물었는데... 흘러내리는 과  
즙과 그 맛과 향이 정말 황홀했어 향긋한 향에 달콤한 과즙  
이라니... 그때 꿈속에서 맛봤던 맛과 복숭아의 하얀 속살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 지금 생각해도 입가에 군침  
이 돌아... 그 맛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단다

포항 외할머니는 항상 엄마 생일이 되면 커다랗고 탑스럽게  
예쁜 천도복숭아를 사주셨어

그날만큼은 가격이 비싼데도 그렇게 예쁜 복숭아를 사주셨  
지... 엄마는 지금도 천도복숭아를 가장 좋아해

우리 예린이는 딱복파라 단단한 복숭아를 좋아하고 잘 먹지? 복숭아 향이 너무 좋아서 어릴 때는 너랑 손잡고 농산물 시장에도 자주 갔었는데... 너 4살 5살때 진짜 예뻤었어 네가 태어나던 2012년 7월 25일은 정말 폭염이 기승이라 많이 무더웠단다 엄마는 두 번째 제왕절개 수술이라 훗배앓이가 너무 심했고 갑작스런 고열에 진통제도 잘 들지 않아서 엄청 많이 아팠고 고생을 많이 했어 너는 2.7kg로 태어나서 정말 작고 소중한 아가였는데 지금은 어느덧 14살 중1 청소년 소녀라니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만큼 엄마도 나이가 들어 40대 후반이 되었네 우리 예린이는 항상 야무지게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척척 잘 해내는 아이, 애교도 많고 춤추고 노래부르기도 잘해서 찬양 유통시간에는 항상 예쁨을 받았어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풍노도의 대혼란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정서적으로 기복이 있으며 가끔은 감정이 폭발하기도 해... 그치? 그럴 때마다 아 우리 예린이가 지금 불안정하구나,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 이해를 하다가도 '아, 또 왜저래...' 하고 솔직히 낙심할 때도 있어 완벽하게 다 잘 해내고 싶은 욕심이 앞서는데 그렇지 못할 때면 힘든 게 당연해. 엄마는 나맘 다 알아 이해해... 이 대

혼란의 시기가 무사히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입은 꾹 닫고 두 귀는 활짝 열어서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께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엄마에게

엄마~ 안녕!! 나 둘째딸 은영이야

학창시절 이후로는 처음 쓰는 편지... 내가 그동안 너무 무  
심했다 그치 죄송해요

지금까지 우리 삼남매를 사랑과 헌신과 정성으로 잘 키워주  
셔서 정말 감사해요 꽃을 이쁘게 가꾸시고, 살림을 항상 깔  
끔하게 정돈하시고, 정갈하고 맛있게 요리하시는 우리 엄마  
는 정말 최고 중에 최고 엄마예요 포항집 마당에는 엄마가  
정성스레 가꾸시는 엄마의 화단이 있죠 어쩜 이리 예쁘게  
화초들을 가꾸시는지 볼 때마다 놀라워서 감탄사 연발이예  
요

무엇이든 사랑과 정성을 다해 가꾸고 키우시는 엄마가 멋지  
고 존경스럽답니다

어릴 때는 항상 바쁘게 일하는 맞벌이 엄마가 서운하기도  
했어요 집에서 살림하고 맛있는 간식 챙겨주는 친구 엄마들  
이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 그때 열심히 사  
회생활하는 엄마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저도 지금까지 직

장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엄마 덕분이다 싶어요

2008년 견우 낳고 약해진 마음에 직장 그만두고 아가만 키우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애 크는 건 금방이다 내 일이 있어야 덜 힘들고 덜 지치는 거야...' 마구 흔들리는 내 마음을 굳게 다잡아준 엄마 그때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엄마 덕분에 지금까지 쉬지 않고 내 일을 계속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60대 후반까지 직장생활하는 엄마를 보면서 '아 나도 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내 커리어를 열심히 쌓아야겠다' 다짐해요 엄마는 나에게 영웅같은 존재예요 난 비록 엄마처럼 다 잘 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엄마 딸이니깐 나도 내 삶을 잘 가꾸어 살아내볼께요

은퇴하시고 지금은 농장에서 동물 키우고 농작물 재배하시는 소일거리를 하시는 엄마

한없이 마음 약하시고 눈물 많고 정이 많은 우리 엄마...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우리 옆에 계셔 주세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얼굴 볼수 없지만 항상 엄마를 위해 기도할께요 무뚝뚝한 딸이라 살갑게 다가가진 못해도 마음만큼은 엄마를 최고로 존경하고 많이 사랑한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요~ 사랑해요 엄마



© 2025. 황운영



## 우리집 장남 전우에게

너를 만나기 전 꾼 태몽이 바로 동그란 눈에 작고 귀여운  
까만코 아기곰이야

어느 날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서 있는 나에게 작고 귀여운  
아기 곰이 뛰어 왔어

순간 두려움에 멈칫하다가 나를 공격하면 이 휴지를 던져야  
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곰은 나를 향해 콩콩 달려오는거야 경계심이 탁 풀리면서  
휴지를 바닥에 톡 떨어뜨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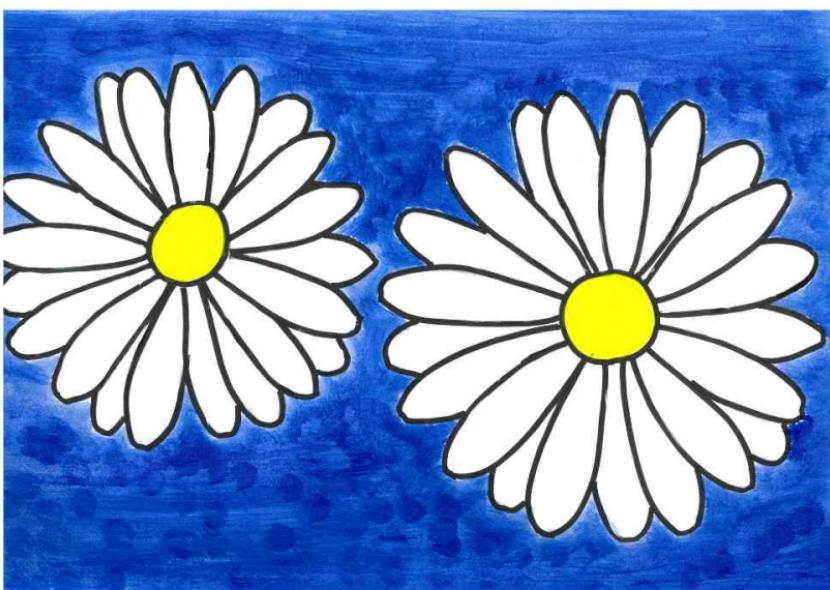
곰은 나랑 놀고 싶었는지 풀리는 휴지를 계속 따라왔어 나는  
휴지를 풀고 곰은 그 휴지를 따라오면서 둘이 놀다가 기  
분 좋게 꿈이 깼단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잠이 깨다  
니... 그날은 종일 기분 좋은 하루였던 걸로 기억나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임신을 알게 되고 끔찍한 입덧의 시작... 일을  
하던 중이라 마음대로 쉴 수도 없었고 아침 저녁으로 차를  
타고 내리면 항상 구토를 하고 입술은 다 터지고 두통도 심  
하고...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아찔한 기분이란다

하필 2008년은 큰 감사가 있는 해여서 아래저래 몸도 마음도 지쳤었지 주변에 보면 여유롭고 즐겁게 태교하는 친구들이 엄청 부러웠어 어느덧 10월 12일 갑자기 양수가 터졌는데 자궁문 열리는 속도는 느리고 진통은 어마무시하고... 결국 응급제왕절개 수술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지 나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얻게 해준 우리 건우는 첫째라서 더욱 남달라

너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귀하단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하고 기도했는데 갈수록 뭔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 대한민국 고3은 자리만으로도 이미 벅차고 힘들때 지금 고2라니... 엄마는 기도밖에는 해줄게 없음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너의 생활습관과 공부 태도로 항상 잔소리해서 미안해 나는 참으로 부족한 엄마인가봐 오늘도 반성할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우리 건우야 너가 목표로하고 희망하는 꿈을 꼭 이루기를 바랄께 하나님께서는 너를 많이 사랑하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께 사랑해 우리아들



© 2025. 황은영



## 샤스타 데이지에게

길을 걷다 문득 내 발길을 멈추게 하는 단아한 꽃 데이지!!  
항상 발길 닿는 곳곳 화단이나 길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데이지 꽃 너는 순수하고 소박해서 더 아름다운 꽃이야 화  
려함을 뽐내는 꽃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단아해서 화사한 매  
력이 있지

포항 시골집에 계신 엄마의 화단에는 여러 가지 예쁜 꽃들  
이 있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바로 하얀 데이지!! 세  
상에 이토록 맑고 깨끗한 존재가 또 있을까? 순백색의 데이  
지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작은 천사와도 같아 바람에 하  
늘하늘 꽃잎이 흔들리면서도 굳건하게 잘 버티고 서있는 새  
하얀 꽃잎의 너는 작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나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어 준단다

너는 봄의 시작과 함께 피어나 밝고 화사한 모습으로 우리  
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순백색 꽃잎은 순수함과 평화, 희망,

겸손한 아름다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하지 특히 새 하얀 데이지의 꽃잎은 소담하지만 화사하고 가녀린 잎이 올 망졸망 모여서 한 송이 꽃을 만들기에 완벽 그 자체야. 소박한 예쁨이 있는 꽃인 동시에 순수함과 소녀 감성을 닮은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데이지 꽃은 아름답고 잘 웃는 금속의 매력적인 요정이래 우와 알면 알수록 너는 진짜 멋진 꽃이구나

서양에서는 연인이 데이지 꽃잎을 하나씩 떼어내며 '그는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점을 치는 모습이 익숙한데 이처럼 데이지 꽃은 설렘과 기다림의 상징으로도 여겨지나 봐 그저 예쁘기만 한 줄 알았던 데이지 꽃에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니,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

작은 씨앗에서 싹이 트고, 꽃망울이 생기고, 마침내 활짝 피어나는 데이지 꽃!!

너를 보며 느끼는 기쁨은 생각보다 훨씬 커 특히 바쁜 일상에 작은 쉼표가 필요할 때, 여린 듯 강인한 데이지 꽃을 넣을 놓고 한참동안 바라보고 있노라면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도 한단다. 그저 피어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주는 꽃 데이지야

## 팝아트로 쓰는 편지

발행일 | 2025년 8월 21일  
글·사진 | 이현숙 김수영 김해기 이선복 이옥화 이일순  
정부희 정지은 이한나 최영애 황은영  
지도강사 | 이현숙  
편집 | 최아름, 윤소이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독서문화과)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21  
전 화 : 032-363-5013  
누리집 : <https://lib.ice.go.kr/shintree>  
제작 |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ISBN | 979-11-94496-34-2(05810)

\* 이 책은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의 2025년 시민저자학교 6기 「시와 그림으로 편지쓰기」 참여 시민들과 함께 제작된 책입니다.

\* 이 책의 글과 그림,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